

경기도공공도서관발전방향

□ 일 시 : 1999. 2. 9 (화) 14:00 ~ 17:30

□ 장 소 :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경 기 도

이 유인물은 재생용지로 사용한 것입니다

경기도공공도서관발전방향

□ 일 시 : 1999. 2. 9 (화) 14:00 ~ 17:30

□ 장 소 :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경 기 도

목 차

○ 토론회 진행순서	-----	3
○ 개 회 사 (경기도지사 임창열)	-----	5
○ 축 사 (한국도서관협회장 이두영)	-----	7
○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자 약력	-----	9
○ 기 조 발표 (경기도 공공도서관 정책 -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이인재)	-----	11
○ 주제 발표 1 (공공도서관 발전방향 - 한성대 이용남교수)	-----	21
○ 주제 발표 2 (도서관활성화를 위한 도민 참여 방안 - 문화일보 논설위원실 유경환 고문)	-----	33
○ 주제 발표 3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 경기도립포천도서관장 김지봉)	-----	59
○ 주제 발표 4 (경기도 공공도서관 협력체제 방안 - 경기대 김태승 교수)	-----	77
○ 부 록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개선 및 발전계획)	-----	91

여 백

진행순서

■ 참가자 등록 ----- 13:30 ~ 14:00

■ 개 회 식 ----- 14:00 ~ 14:20

- 진행사회 : 박완웅 (경기도 문화정책과장) -

◇ 국민의례

◇ 개 회 사 (임창열 경기도지사)

◇ 격 려 사 (이두영 한국도서관협회장)

- 토론회 사회 : 최은주 (경기대문헌정보학 교수) -

■ 기 조 발 표 ----- 14:20 ~ 14:30

◇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개선 및 발전방향

- 이인재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자 발표 --- 14:30 ~ 16:45

1. 공공도서관 발전방향

1) 주제발표 : 이용남 (前 한성대 총장)

2) 지정토론자 :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상복 (대진대 문헌정보학 교수)

2.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민 참여 방안

- 1) 주제발표 : 유경환 (문화일보 논설위원실 고문)
- 2) 지정토론자 : 박완기 (수원 경실련 사무국장)
이영성 (경기도의회 부의장)

3.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 1) 주제발표 : 김지봉 (경기도립 포천도서관장)
- 2) 지정토론자 : 조형진 (강남대 문헌정보학 교수)
안기영 (경기도 문교위원회 의원)

4. 경기도 공공도서관 협력체제 방안

- 1) 주제발표 : 김태승 (경기대 인문학부장)
- 2) 지정토론자 :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이종문 (한국디지털도서관 포럼원장)

■ 토론내용 요약발표 ----- 16:45 ~ 16:55

- 사회 : 최은주 (경기대 문헌정보학 교수) -

■ 종합토론 (도민 질의응답, 정책건의) — 16:55 ~ 17:25

- 사회 : 최은주 (경기대 문헌정보학 교수) -

■ 감사인사 ----- 17:25 ~ 17:30

- 이인재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

■ 폐 회 ----- 17:30

개 회 사

오늘 도서관 관련 전문가 및 도민여러분을 모시고 「공공도서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두영 한국도서관협회장님을 비롯한 문헌정보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내빈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우리도가 마련한 「도서관 발전 및 운영 개선 계획」에 대하여 관련전문가의 고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도서관은 도서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책부재로 단순히 학생들의 학습공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문화의 천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과 연계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공공도서관의 활성화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도민 누구나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2천년대를 준비하는 새 문화정책에서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다가오는 2000년을 경기 문예진흥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시행하여 문화 기반시설 확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도의 공공도서관이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미 도서관 발전 및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한 바 있으며 공공도서관이 정보자료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의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관심을 더욱 높여 경기도 공공도서관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축사를 맡아주신 이두영한국도서관협회장님과 사회를 맡아주실 최은주 경기대교수님,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하여 주실 네분의 발표자와 여덟분의 토론자, 그리고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여러분이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앞으로 경기도 공공도서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나아갈 것을 약속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 2. 9

경기도지사 임창열

축 사

존경하는 임창열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오신 귀빈 여러분과 도서관 및 행정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곳 수원에서 “경기도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경기도가 21세기의 지식사회에 대비하여 지식 및 문화기반 시설의 핵심이 되는 공공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천년을 내다 보면서 21세기 문화국가로서 발돋움 하려는 경기도의 의지가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앞서 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일로써, 우리 도서관 계에서는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이며, 지식과 정보가 곧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원이 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서 인간의 정신적 필요가 중요시 되고,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진정한 문화국가의 건설이 강조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도서관은 과거 인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문명"이라고 이름하는 인간의 지식과 정서의 산물들을 역사 속에서 이어온 지식의 보고이며, 인류의 현재와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창조적 사고와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문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의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혁신으로 소위 사이버도서관(Cyber Library)의 개념이 구현됨으로써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첨단 정보기술을 갖춘 도서관을 더 확충하는 사업이 21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 도서관을 중심으로한 국가정보 인프라(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나아가서는 세계 정보 인프라(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기도에서는 모든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대로 21세기를 지식사회로 규정하면서, 도서관이야말로 지식과 정보의 센터이자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정책의지에 따라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개선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오늘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는 지역 주민의 알권리와 문화향수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복지 국가의 건설과 함께 경기도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승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임창열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경기도청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미래 지향적인 노력은 우리 나라 도서관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도서관계 모두는 이 자리를 빌어 경기도의 힘찬 출발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오늘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경기도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99. 2. 9

한국도서관협회장

이 두 영

□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자 약력

주 제	구 분	성 명	약 력	비고
○ 사 회		최은주	○ 미국 DREXEL 대학 문헌정보학 석사 ○ 연세대 문헌정보학 박사 ○ 경기대 문헌정보학 정교수(현)	
○ 공공도서관 발전방향	주제발표	이용남	○ 성균관대 문헌정보학 박사 ○ 한성대학교 총장 ○ 한국문헌정보학회 회장(현) ○ 한국도서관협회 기획위원회위원장(현) ○ 한성대 문헌정보학 교수(현)	
	지정토론	김군수	○ 일본 쓰꾸바 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현)	
	지정토론	이상복	○ 성균관대 문헌정보학회 박사 ○ 한국문헌정보학회 간사 (현) ○ 대진대 문헌정보학 교수(현)	
○ 도서관 활성화 를 위한 도민 참여 방안	주제발표	유경환	○ 연세대 대학원 언론학 박사 ○ 미국 미시간대학교 교환 교수 ○ 조선일보 문화부장논설위원 ○ 문화일보 편집국장 논설위원실장 ○ 한국언론학회 신문이사(현) ○ 한국아동문학인협회 고문(현) ○ 문화일보 논설위원실 비상임 고문(현) ○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신방과 겸임교수(현)	
	지정토론	박완기	○ 고려대 사학과 졸업 ○ 수원 경실련 사무국장(현) ○ 수원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사무국장(현) ○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현)	

주 제	구 분	성 명	약 력	비 고
○ 도서관 활성화 를 위한 도민 참여 방안	지정토론	이영성	○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졸업 ○ 4대 경기도의회 의원 ○ 성남시 시정 지문위원(현) ○ 성남도서관운영위원장(현) ○ 경기도의회 부의장(현)	
	주제발표	김지봉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 석사 ○ 경기도립 포천도서관장(현)	
	지정토론	조형진	○ 대만대 도서관학 석사 ○ 중앙대 문헌정보학 박사 ○ 워싱턴대 교환 교수 ○ 강남대 문헌정보학 교수(현)	
	지정토론	안기영	○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 정당인 (현 한나라당) ○ 경기도의회 의원(현)	
○ 경기도 공공 도서관 협력 체제 방안	주제발표	김대승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 박사 ○ 한국문헌정보학 교수 협의회장 ○ 한국도서관협회 기획위원회위원장 ○ 경기대 인문학부장(현) ○ 경기대 문헌정보학 교수(현)	
	지정토론	이용훈	○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졸업 ○ 전국사서협회장 ○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현)	
	지정토론	이종문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현) ○ LG 상남도서관 과장 ○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원장(현)	

기조발표

경기도 공공도서관 정책

이 인 재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여 백

경기도 도서관 발전 및 운영개선 계획

경기도문화관광국장

이 인 제

1. 정책추진 배경

경기도는 다가오는 2000년을 "경기문예중흥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체계적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99년도를 "경기문예중흥의 원년을 준비하는 해"로 정하여 올 10월중에 "경기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새 천년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새 문화정책을 발표, 문화를 국가발전의 핵심으로 보면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우리 경기도 역시 국민의 정부가 표방하는 새 문화정책에 따라 도민들의 실질적인 문화복지 구현을 위하여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 인구 10만 명당 1개관을 목표로 올해에도 11개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박물관 7개소와 미술관 7개소를 건립하고 이와 함께 1시·군 1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기존 시설의 기능을 정비하고 운영의 전면적인 개선을 통하여 문화시설의 활용도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문화정책의 하나로 공공도서관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연계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도서관 발전 및 운영개선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열람기능과 수험생의 공부방 수준에 머무르고 있던 공공도서관을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설의 점진적 확충과 도민 참여의 확대 등 도서관 발전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문화관광국 업무계획 보고시 경기도의 도서관정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이 되게끔 선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지사님의 격려말씀이 있었고 '99년도 예산편성시 당초 계획에 없었던 20억원을 특별히 지원하였습니다.

2. 우리 도의 도서관 현황 및 운영실태

우리 도의 공공도서관은 현재 44개관이며 1개관당 인구수가 19만 3천명으로 공공도서관의 절대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유중인 장서수는 224만 권으로 1인당 장서수가 0.29권에 불과해 타 시·도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선진외국과 비교한다면 1960년대 일본의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지역주민이 도서관을 이용한다든가 자료제공 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열악합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운영실태를 보면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문화공간보다는 학습공간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단지 시설관리 중심의 운영이라든가 시설확충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지식·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공공도서관이 이용자 중심, 각종지식과 정보·자료중심의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의 구심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체계적인 도서관발전정책이 없었고 관리체제마저 이원화되어 공공도서관의 질적발전은 계속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 도서관 발전 및 운영개선 계획

정부에서는 이미 2000년대를 준비하는 새 문화정책에서 도서관기능을 대폭강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5,350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로 2002년까지 520관을 확보하고 2011년까지 750관을 확보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도서관 발전 및 운영개선 계획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1) 독서문화공간확충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공공도서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000년대 인구 1000만의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다가오는 2005년까지 2만 5천명당 1개관 목표로 공공도서관을 400개관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충방안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44개관 외에 건립추진중인 11개관을 포함하여 향후 45개 도서관을 신설한 방침이며 건립추진중인 11개관에 5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신규추진 예정인 45개관에는 27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도서관을 공공투자만 가지고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기에는 재원투자 등의 문제가 있어 목표달성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내의 재력가(기업가 등)들로 하여금 재산사회환원 차원에서 도서관을 건립하여 기증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부지알선(제공) 및 세금감면 등의 지원과 기증자의 이름을 도서관명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도서관 확충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소규모 도서관이 많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행정구조 개편계획과 연계하여 읍·면·동사무소 폐지시 청사를 도서관으로 활용, 생활권 중심에 300개의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회관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내 관리 사무소나 지하유희공간 그리고 은행지점 등을 문고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시 신설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에는 도서관 건립을 의무화 하는 조례제정 추진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시설에서 멀리있는 지역이라든가 소외지역에는 이동도서관을 확대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자료이용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 도서자료 확충 방안

독서 문화공간 확충과 함께 열악한 도서자료도 2005년까지 1인당 장서수를 1권까지 확충하고 향후 2권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시설확충이 H/W 중심이었다면 자료확충은 S/W 중심 서비스로서 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료제공 서비스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서관 자료의 확충을 위하여 향후 시군 도서자료구입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305억 원 정도로 약 760만 권의 자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도서관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도서관을 육성하고 자료의 특성화를 통하여 자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또한 자료확충에 있어서도 도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범도민 도서기증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3) 도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지향

공공도서관의 역사적 전통이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는 공공도서관이 본래 지역사회의 주민에 의해 설립되기 시작할 정도로 도서관 발전에 있어 주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서관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관운영에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인력 부족도 경감시키고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립문고는 도서관 관계법령에 의해 적극 지원하고 공공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관련조례를 제정할 것이며 사립문고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도 검토할 것입니다.

(4) 도서관 운영개선

도서관을 시설관리 중심에서 서비스운영 중심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원(사서)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직원 충원은 물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24조에 따라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보임하여 공공도서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도서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직 충원에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지방행정 계층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전직훈련을 통하여 도서관 관련 전문직으로 양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정보 기능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CD-ROM을 중심으로 한 비도서자료의 증가라든가 컴퓨터네트워크 보급에 따른 디지털형태의 자료수요 증가 등이 새로운 정보의 수요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첨단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도서관내 첨단정보자료실을 설치·운영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인터넷서비스, CD-ROM 등의 영상정보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각 도서관에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전산교육 시설장비를 구축하여 다양한 컴퓨터용 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지식과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예상되는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업무처리를 완전히 전산화하여 업무의 편의성과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도서관의 첨단 정보화사업과 병행하여 도서관간 협력망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자료 제공을 추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도서관 운영개선에서 도서관 정보기능의 보강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교육 기능도 향상시키면서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문화 수요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션을 촉진시키는 문화진흥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5) 경기도 중앙도서관제도 도입

이와 같은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중앙도서관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과 같은 문화복지 정책은 지방고유업무로서 지역의 발전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공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는 도에서 지금까지 예산지원의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천년의 정보·문화시대의 수요를 대비하고 공공도서관을 선진국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도에서 중앙도서관을 운영하여 도서관활성화정책의 수립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안들을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선진국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중앙도서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중앙도서관제도의 도입을 장기발전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 결론

이상 우리 도의 도서관발전 및 운영개선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도서관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도서관이 지역의 명실상부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모임의 장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본 계획이 완성되는 2000년대 초가 되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변화·발전되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 백

주제발표 1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

이 용 남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교수)

여 백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교수 이 용 남

1. 서 론

18-19세기에 이르러 알 권리, 읽을 권리를 주창하던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장치로서 제도화된 공공도서관은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하여, 오늘날은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시설로서 그 사명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지식과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지역 문화와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하는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과 더불어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그 역할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 미래사회는 인간사고와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창의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보.문화인프라를 튼튼히 구축하는 일이 선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왔다. 특히 전국의 도서관 환경이 열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저조했던 실정에서, 이번 경기도의 공공도서관 발전 계획안은 도단위 자치단체의 도서관 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상기 계획안은 현실 진단과 추진 방향 설정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의 주제발표는 오늘의 토론회가 기대하는 바에 따라, 상기 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고 중점사항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효율적인 정책추진 방향을 총론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2 .도내 공공도서관의 문제점

경기도내 공공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이미 여러 문헌에 지적된 바 있지만, 논의 전개를 위해 요점만 간단히 재론하기로 한다.

(1)도서관의 양적, 질적 취약성

①도서관의 부족 현상

- 도내 공공도서관 수: 총 44개관
- 1개관당 봉사대상 인구: 19만명(전국 평균: 12만6천명)
 - * 선진 외국 경우의 3-10배 수준

②기존 도서관 운영의 빈약성

도서관의 양적 부족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기존 도서관 운영의 빈약성이다.

- 도민 1인당 장서수: 0.29권(전국평균: 0.38권, 선진외국: 2-3권)
- 도민 1인당 도서관 예산: 2,736원(전국 평균: 3,595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연말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전국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결과에 의거한 개개 도서관의 운영실태를 본다면, 도내 도서관 중 3개 도서관(포천, 과천, 성남)은 전국의 우수 도서관 20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나머지 40여개 도서관들은 모두 50위권 이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내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소관 도서관과 시군청 소관 도서관 간에 운영실적에 있어 그 차이가 현격하다. 교육청 소관 8개관은 1관당 평균 9만4천여권의 장서에 20여명의 직원인 반면, 시군청 소관 36개관은 평균 4만5천권 장서, 13명 직원으로서 질적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평가 결과 전국 20위권 우수 도서관에 들어 있는 3개관은 모두 교육청 소관이며,

시군청 소관 도서관은 모두 50위권 이하에 머물고 있다. 특히 평가 영역별 전국 최하위권(평점 10점대 미만) 도서관에 들어 있는 화성군립남양도서관(자료영역), 의정부시립, 의왕시립도서관(직원영역), 과주시립도서관(운영영역) 등이 모두 시군청 소관 도서관이다.

(2)정책의 부재와 관리체계의 이원화 문제

중앙정부(문화관광부)는 국가의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되,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의지에 따라 그 육성 방향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경기도 경우에도 관내 공공도서관의 설치, 육성을 위한 장단기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특히 공공도서관 관리 행정체계가 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고 도서관간의 인사교류 및 협력체제가 유기적이지 못하다.

3. 도서관 정책 추진 방향

(1)기존 도서관의 정비 육성 및 기능 강화

도서관 발전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새 도서관을 만드는 일보다 있는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는 일인 바, 이를 위한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자료제공 중심의 운영(공부방 탈피)

도서관은 시설이 아니라 자료와 정보의 집합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건물 없이 자료만 운용하는 도서관은 존재할 수 있어도, 가치 없는 자료에 건물만 있는 시설은 도서관이 아니다. 실제로 일본 히노(日野)시의 경우는, 공부방을 탈피하고자 1965년에 건물 없이 자동차 이동도서관만으로 자료대출 위주의 봉사를 시작하여 시민에게 도서관의 본질을 인식시킨 후, 작은 분관을 건립하고 최후에 본관을 세움으로써, 오늘날 일본 최고 수준의 공공도서관을 이룩한 사례가 있다. 환언하자면, 신간 우량도서(전자매체 포함)를 지속적으로 구입,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시민에게 어떻게 제공하느냐의 여부가 도서관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법이다. 그리고 도서관 장서는 지역 특성과 주민의 독서 욕구를 반영하여 구성하되, 전문직 사서가 중심이 된 엄격한 선택 절차에 따른 양서구입 체제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오래되고 낡은 자료는 다른 자료 이용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정기적으로 폐기시킴으로써 장서를 신선하고 생동감 있게 유지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로부터의 현품 도서기증 운동은 과거의 많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비매품 자료(정부, 단체, 기관 간행물, 학위논문 등)를 제외하고는 도서관에 비치 활용할 수 있는 양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도서가 많으므로, 자료의 가치와 질을 엄선하여야 한다.

또한 도서관 봉사는 시민에게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이어야만 한다.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도서관을 학생 공부방으로 인식하고 운영하는 전근대적 사고이다. 공부방으로 사용하는 열람석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자료를 각 방에 개가제로 분산 배치하여 이용자가 자유롭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만약 공부방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있다면, 이 수요는 설치와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서관에서가 아니라, 공간과 책결상만 있으면 되는 별도의 공부방을 마련하여 충족시키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다.

②전문직 사서 중심의 운영

인쇄매체와 전자매체 자료의 선택, 수집, 정리, 활용, 정보조사제공에서부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행사의 기획과 시행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리위주 개념에서 이용자 서비스 위주의 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정 기준 이상으로 충분한 인원의 전문직 사서가 배치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전체 직원 중 사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교육청 소관 도서관이 46.9%. 시군청 소관 도서관이 20.5% 밖에 안되고, 도내 44개 도서관 중 사서직이 법정기준에 도달한 도서관은 8개관뿐이므로 사서직 보충이 선결과제이다.

③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에서 자료제공 중심의 봉사에 이어 요구되는 활동은 프로그램 중심의 봉사이다. 지역문화와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활동은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문화적 체험 및 교육 효과, 잠재 이용자의 유인 효과, 그리고 공공도서관 장서의 확장 효과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각종 독서모임, 토론, 전시, 강습, 강연회 등을 각 지역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여 실효성 있게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참가한 주민들과 지속적인 유대를 맺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들을 도서관의 단골 이용 세력으로, 도서관에 대한 여론지지 및 후원세력으로, 그리고 자원봉사 등의 협조를 위한 연결 고리로서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가치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2) 도서관 신설

경기도의 도서관 발전 계획안에 제시되어 있는 도서관 신설계획은 매우 획기적이다. 2005년까지 현재의 44개관을 100개관으로 확충하고, 분관(작은 도서관) 300개관을 신설한다는 계획은 우리 문화계의 시선을 집중시킬 만 하다. 방대한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도서관 건립기증 운동으로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민간 독지가가 건립 기증하는 도서관이더라도 그후의 관리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어야 한다. 미국의 카네기가 전국에 무려 1,600여개의 공공도서관을 설치 기증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부지 및 연간 운영비(건축 및 초기 자료비의 10% 정도)를 지속적으로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진 사실은 참고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본관(本館)급의 큰 도서관뿐만 아니라 분관(分館)급의 작은 도서관을, 폐지되는 읍면동 사무소를 이용하여 다수 설치하려는 방안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공공도서관을 활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학술적 목적보다는 가벼운 자료 이용 등 대중적 서비스에 있음을 감안하고, 공공도서관의 유효봉사반경(有效奉仕伴徑)은 대체로 주민이 도보로 10-20분 거리인 점을 감안할 때, 가까운 곳에 작은 도서관을 다수 배치하는 계획은 매우 타당한 방안이다.

(3) 도내 도서관의 시스템화

경기도내 공공도서관들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계층 구조로 시스템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도단위 중앙도서관--- 시군단위 본관--- 읍, 면, 동단위 분관

우리 나라의 공공도서관들은 대체로 개개도서관들이 독자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분관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하여야 한다. 주민 가까이 작은 도서관을 다수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관 시스템으로 그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인구 2만명 대상으로 1개 도서관보다는, 인구 10만명 대상에 1개의 본관과 4-5개의 분관 체제를 운영한다면 같은 수준의 봉사를 제공하는데 1/2정도의 운영비로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선진국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도서 대출량 중 분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인구 10만의 도시에서는 45%, 100만의 대도시에서는 80%를 감당하고 있는 정도로 분관의 비중이 크다.

분관의 기능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작은 규모의 공공도서관으로 간주하여 지역 본관이 수행하는 식의 참고봉사 등 비교적 수준 급의 봉사를 수행하는 지역분관(regional branch, library service branch)이며, 둘째로는 주로 대중적인 자료의 대출만을 감당하는 소분관(sub-branch, book-distributing branch)이다. 특히 후자 경우의 소분관은 독자 건물 없이 장소를 임대하거나 하루 중 일정 시간대에만 개관하는 사례도 외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바, 농어촌 지역에서 참고할 만 하다. 어떠한 유형의 분관이던 간에 분관은 직접봉사 영역의 공중 서비스 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기술적인 간접봉사 업무는 지역 본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도단위 중앙도서관은 경기도내 도서관시스템의 중심 도서관으로서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 학술적이거나 수준 높은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분관이나 본관에서 충족되지 못한 정보욕구 충족의 서비스 위주로 운영하면서, 도내 도서관 정책의 수립과 도내 도서관에 대한 지원협력 업무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도쿄를 비롯한 외국의 중앙도서관 시스템들이 국내 문헌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고가 될 것이다.

(4)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체제 구축

위와 같이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시스템화하는데 가장 큰 저해요인은 시군청과 교육청으로 나뉘어진 행정체계의 일원화 현상이다. 우리 공공도서관 발전을 가로막는 이 문제의 뿌리는 깊다. 정부수립 후 1948년 대통령령에 의해 도서관 업무는 문교부 문화국에서 관장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당시 지방자치법에 의해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1952년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도서관 운영을 교육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게 되어 있었으나,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일부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양측 기관이 도서관을 독자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왔다. 1991년 도서관 정책의 문화부 이관으로 행정체계 일원화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교육재산(학교 또는 교육청 부지)에 건립된 도서관(당시 124개관)의 시군 이관을 위한 회계간 재산이관(재정분할)의 어려움을 내세우는 교육청 측의 입장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일부 부담해오던 운영비의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하는 시군청 측의 부담이 맞물렸기 때문이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한다는 전제 아래 이원적 운영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난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앙부처 간의 일괄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의욕적으로 도서관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부티라도 양측 기관의 정책 조율로서 그 해결점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5) 민간위탁 논란의 문제

정부의 행정 서비스에 내재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요즈음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민영화) 문제가 도서관 분야에도 심도있게 거론되고 있다.

일찍이 도서관의 민간위탁을 실시했던 나라는 일본인데, 1981년 교토(京都)시를 시작으로 히로시마(廣島)시, 와코(和光)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바 있다. 도서관을 탄력있게 운영하고, 민간의 활력을 도입하겠다는 장점을 내세웠으나 결국은 도서관 서비스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역시 소수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1995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의정부시립도서관이다. 주차장, 시민회관 공연장 등과 함께 위탁관리되고 있는 의정부도서관은 빈약한 장서에, 전문직 없이 관리공단 직원 1명, 일용직 2명으로 운영됨으로써, 경기도내에서는 물론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도 최하위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공도서관을 경제논리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다음의 이유 등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첫째, 민간의 활력을 도입하여 대민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는 논리는, 항구적 재원이나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민간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경영기법으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관이나 합당한 일이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여 자체수익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기관에는 적절하지 않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효과가 근본 동기일 터인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공동출자 형식의 공익법인을 설립한 후, 운영하는 방안을 희망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면 별도의 문화재단을 만들어 명예를 내세우면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도서관 사업을 펼치려 할 것이며, 자치단체와 갈등이 예견되는 민간위탁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로, 결국은 수탁기관이 운영비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위탁관리하는 형태가 대다수일 터인데, 수탁기관은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비정규직 인력으로 가시적이고 계량적인 성과만을 추구함으로써, 사업성과의 보상적 가치가 늦게 나타나는 공익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는 크게 훼손되고 말 것이다.

도서관 전체의 관리위탁은 불합리하되, 차선책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능별 업무의 부분위탁(아웃소싱)이다. 부분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시설 설비유지 업무중 법률상으로 규정된 업무(전기, 소방설비, 엘리베이터 등의 보안 보수업무)를 비롯하여 청소, 경비, 주차관리 업무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서관의 본질적인 고유업무 중에서도 다른 업무와 연계성이 덜한 업무, 예컨대 자료의 발주 및 입수업무, 자료의 장비, 분류, 편목업무 및 제본, 복사업무 등은 도서관 상황에 따라 위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이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세워 추진할 뿐만 아니라, 이미 민간위탁되어 도서관의 참모습을 상실한 도서관은 환원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4. 결 론

경기도의 의욕적인 도서관 설치 육성 계획은 전국의 도서관계는 물론 우리 나라 문화계의 기대를 부풀리게 하고 있다.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과거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도서관 발전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책임자가 바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지부지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으니, 이러한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을 확고한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연차적인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 연구가 뒤따라야 되는 만큼 전문화된 팀을 구성하여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2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민참여 방안

유 경 환

(문화일보 논설위원실고문)

여 백

만남, 즐거운 만남을 위한 공간

문화일보 논설위원실

실장 유 경 환

1. 기다림이 있는 공간

공원 안 아늑한 곳에 놓여있는 벤치에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빈 벤치가 남아 있으면 덜 외롭다. 기다림이 있으므로 덜 외롭다. 기다림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은 만남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만남을 기다리는 마음은 뉘에게든 속마음 안쪽에 접혀있다.

이런 정서는 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활인이면 누구든 지니는 정서이다. 짝 짜여진 일상적 생활 패턴을 빠듯하게 쫓아가다 보면 고달픔이 달겨드는데, 마치 정지선 앞에서 급정지하는 자동차처럼 갑자기 덩벼든다.

이래서 때때로 삶터에 마련된 쉼터를 찾아가고 싶어한다. 이 쉼터가 도시 안의 도서관이어야 한다면 눈을 크게 뜰 것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야 할 것인가.

도시 안의 도서관을 쉼터로 여기도록 체험한 바 있다. 그래서 영혼을 쉬게하는 삶터로 여긴다. 언제나 빈자리를 남겨놓고 있는 벤치로 생각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곳에 가고싶다.

하얀 목책을 낮게 두른 잔디 정원의 주택가, 반듯한 담으로 구획된 바둑판 건물들, 이런 틈새에 여백이 있는 놀이터, 그리고 숨쉬는 나무들이 조용한 분위기를 만드는 마당과 도서관 건물.

이곳에 들어서면 머리를 싸맨 돌같은 얼굴이 아니라 조용한 표정과 미소가 있는 얼굴이 있다. 수험생이 딱 들어찬 우리나라 열람실 같지 아니하고 참고자료를 뒤지는 탐구의 얼굴들이 있다.

생활을 하다보면 의문이 생기고 「왜」가 떠오른다. 이를 찾아보는 작업장이 도서관이다. 그러기에 공부방이 아닌 생활연구실이요, 삶의 문제를 푸는 실제공간이요, 삶의 연장으로서는 쉼터인 것이다.

실제로 이런 곳에서 만나본 사람들은 학생들이 아니고 젊은 주부에서부터 나이든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의 생활인들이다. 단조로운 집안일에서 벗어나 변화를 찾는 사람 같은 표정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아이들의 팔목을 잡고 함께 오기도 하고 또 유모차에 갓난아기를 눕히고 때때로 한쪽 무릎을 꿇어 사랑스럽게 들여다보며 속삭임을 아기에게 주면서 오기도 했다. 그 수채화 같은 인상….

2. 말과 생각을 나누는 방

도서관이라는 쉼터에는 그림이 걸려있는 작은 전시관이 으레 한구석에 마련되어 있다. 그것이 꼭 명화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지역사회에 사는 화가들이 돌아가면서 빌려주어 「이 주일의 그림」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그 지역사회 화가들에게 전시장을 빌려주는 효과와 함께 화가의 참여를 유도한다.

새로 바뀐 그림 앞에 서서 영혼을 달래본다. 「아, 내 고장에 이렇게 풍광이 고운 곳도 있구나」 하면서 감상한다. 매달 몇째주 주말에는 화가들이 나와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화가를 만나러 도서관엘 간다.

도서관이란 쉼터에는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몇 개의 의자가 놓인 음악실이 마련되어 있다. 방음장치가 잘 되어있어서 아무에게도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아침마다 명곡해설의 설명서가 새로 붙는다. 그 지역에 사는 음악애호가들이 시·간제 자원봉사로 이일을 맡는다. 귀로 듣는 음악만이 아니다. 눈으로 읽는 음악도 있다. 이것 역시 자원봉사자들이 복사해 놓는다. 대개 그 지역 민요에 관한 내력과 해설이다.

도서관이라는 쉼터에는 말과 생각을 나누는 방이 따로 있다. 일단 도서관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병어리어어야 한다. 하지만 말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실에는 나직한 속삭임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끼어들어 문화를 이야기하고 마을을 이야기하고 전통을 이야기 하다보면 어느새 자원봉사의 결심이 선다. 이렇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단골들은 학생이 아닌 생활인인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가기 마을 도서관엔 거의 안간다.)

도서관이라는 쉼터에는 시와 수필을 읽고 토론하는 문학마당이 있다. 아마추어들이 모이는 자리다. 하지만 날을 받아 그 지역에 사는 이름난 시인 작가도 초청한다. 대부분 목요일 오후 늦은 한두시간에 문학과 만나는 모임이 격주로 마련된다.

자기가 써온 것을 읽고 비평을 청하기도 한다. 어깨를 들썩거리며 칭찬하고 부추겨준다. 「나도 써봐야지…」 하는 욕구가 스며들 수밖에.

도서관이라는 쉼터에는 기념품점이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한다. 오래된 우표, 마을기념팻지, 목공예토산품, 나무뿌리 조각품, 마을을 배경으로 한 그림엽서… 따위.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로 시간표를 짜서 붙여놓고 주 이틀에 몇시간씩 시간제로 교대하며 일한다. 이런 참여를 젊어지는 기분으로 일하므로 즐겁고 보람있는 「봉사」라 여긴다.

도서관이란 쉼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간이음식점 곧 스넥이 있다.

도넛을 팔거나 음료수를 판다. 또 연극공연 오페라 공연의 표를 팔기도 한다. 물론 위탁판매이다. 시장엘 갔다오다, 슈퍼마켓엘 가다오다 들르도록 마을 사람들이 찍은 사진의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꽃꽂이 강습이나 종이접기강습을 열기도 한다. 그러니 오다가다 왜 안들르랴.

3. 눈웃음이 가득한 곳

영혼의 쉼터. 맑은 물이 넘쳐흐르는 샘가의 신선한 분위기 같은 쉼터, 내가 좋아할 수 밖에 없는 도서관의 분위기다. 한 20여년전 한해동안 이런 분위기에 푹 젖어 보았다. 깔끔하고 아늑한 실내와 신선하고 조용한 실외가 모두 문화공간이다.

이런 곳에서는 시간이 공간으로 느껴진다. 한나절 들어가 있어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그 분위기가 좋아서이다. 시간이 공간으로 바뀐다는 말은 이런 뜻이다. 철따라 나무와 나뭇잎의 색깔이 바뀌는 것만이 달라질 뿐 다른 것은 언제나 한결같다.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도서관에 온다. 발끝으로 걷는 것부터 배운다.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병어리가 되는 것도 현장교육으로 배운다. 「이런 배움터가 있구나」를 견학으로 알게 된다.

이답에 크면 이곳에 와서 알고싶은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미래를 느낌으로 안다. 도서관이 왜 필요한 지를 느낌으로 알게되고 도서관이 왜 있어야 하는 지를 직감으로 깨닫게 된다. 과거의 시간만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시간도 이렇듯 공간으로 입력되는 곳이다.

20년전 돌아와서 문화공간이라는 낱말을 처음으로 써보았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쓰고 있다. 그리고 그때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주부들의 지체도 소개했었다.

그런데 어쩐일인지 우리나라의 도서관에선 「문학강좌」, 「서예교실」, 「동화구연」, 「어머니 교실」처럼 어느 한사람만이 연사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듣고 앉아있는 형식의 모임만 열리고 있다. 참가한 모두가 참여하는 더불어 토론하는 그런 모임은 열리지 않고 있다. 이것이 궁극하다.

참여는 가만히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능동적으로 자기 몫을 스스로 찾아내 그 시간과 공간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는 것이 보람있는 참여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참여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는 것일까. 영혼은 행동하는 사람의 영혼이어야 아름답고, 그리고 쉼터를 찾아야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란만.

내가 즐겨다닌 도서관은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기 위해 첫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내나고 발내나는 몸을 붙박이로 앉히는 그런 열람실형식의 도서관이 아니었다.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도서관 분위기는 참고자료가 가득하고 고전적 취향을 풍기는 참고열람실 위주의 도서관이다.

참고열람실의 도서와 소도구엔 모두 기증자의 이름이 붙여있었다. 세월이 가면 남는 전통이 모인 문화공간, 그곳이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지니는 것이 처음엔 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하여간 도서관의 주기능인 책이 있는 공간은 예나 지금이나 한정된 넓이를 지켜 오지만, 그러나 새로운 기능을 갖춘 부속시설들이 「책이 있는 공간」을 둘러싸고 여럿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화공간은 예술공원과 같은 인상을 주고 대학도서관과 구별되는 편안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누구나 부담없이 들러 즐겁게 배우면서 영혼을 쉬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달라진 도서관」 모습이다. 이런 도서관 출입에 입장료가 없다. (입장료를 물었다가 무안을 당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아직도 내 뺨을 붉힌다.)

아무리 작은 도시라 할지라도 박물관이라는 간판의 문화공간이 서너개, 도서관이라는 이름의 문화공간이 서너곳씩 되어야 비로소 도시노릇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서구의 문화환경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엔 교회는 그토록 늘면서 도서관 같은 문화공간은 별로 늘지 않는다. 싱싱하게 살아움직이는 영혼이 설 곳은 정말 어디인가. 영혼이 설곳은 밀폐된, 열리지 않는 공간 속인가.

우리는 도서관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도서관은 정보시장이어야 한다-

1. 머리말

1.1. 도서관에 관한 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왜 이렇게 딱딱하게 씩여져 읽는이에게 부담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너무 엄숙하고 너무 경직되어 읽기에 편하지 않고 즐겁지가 않다.

모처럼 「도서관이 있는 사회」에 대해 글 한쪽을 맡아 쓰게 된 마당에서, 나부터 그 고정관념의 형식을 벗어나 좀 부드럽게 쓰고 싶어진다.

도서관에 대한 일반인식과 그리고 도서관의 바른 역할의 한 부분만 짚어보는 일 몫을 할까 한다.

1.2. 한 십수년 전, 개인이 지속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인 캐럴(carrel)을 미취간 대학교 도서관 안에, 내 이름 석자를 붙여놓고 상당기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 도서관을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은 전자감응식이었고, 이것으로 개인의 공부방인 캐럴도 쓸 수 있었다. 이 개인연구실인 캐럴은 중앙열람실 양쪽 창가로 배열되어 있고 교수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1.3. 이것으로써 미국의 대학도서관 내부구조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물론 이 캐럴 설치하는 도서관의 중앙열람실이 공부방을 원하는 학생에게 「점령」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배려와 설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1.4.

별빛 부스러기 하나

휘날리지 않는

무게 있는 어둠

내게 허락된

작은 창 네모난

넓이에

천천히 스며드는

그림자

이 그림자에도

빛나는 두 눈이 있다.

이것은 그때 서울이 그리웠던 어느날 밤 도서관 개인 공부방에서
써 본 시다.

두명이 들어서면 맞붙어야 할 만큼 좁게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불췌이 책상과 의자가 하나 있을 뿐 이다.

이 안에 움찔거리고 싶은 육신을 가뒤편고 영혼에게 뭔가를 열심히
타이르다 폭포로 쏟아지는 밤의 냉기에 가슴을 열고 졸린 두 눈을
다시 밝힌다.

이 기간에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여러 도서관 시설과 그 운영에 대
해 되돌이켜 보기로 한다.

다만 이 동안에 내게 주어진 한가지 확신이 있으니, 그것까지 밝혀
두고 싶다.

1.5. 확신은 이런 것이다.

한 작가에게 가장 훌륭한 비석은 오직 작품이고, 한 민족에게 가
장 기념될 유산은 오직 도서관 뿐이다.

준다고 여기면서 주면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고, 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면 빛을 안기는 셈이다. 우리가 훌륭한 도서관을 마련하는 것은, 후손을 위해서라기 보다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이다.

1.6. 「아름다운 시민을 만드는 일은 교사가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닌 사람들만 있으면 도서관은 발전하지 못한다. 아름다운 시민을 만드는 일은 인류가 상속한 가장 위대한 과제이다. 이 위대한 과제에 대한 해결방법 또한 인류가 선협경험을 통해서 유산으로 남긴 지혜 속에 있다. 이것을 도서관이 가지고 있다.

2. 도서관에 관한 새 인식

2.1. 도서관은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어떻게 이렇게 비교육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경솔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비교육적이 아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시킬 때 도서관은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부모들이 넣어준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도서관엘 와서 「견학」을 시키기 시작한다.

2.2. 도서관은 생활교육의 장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학습되는 생활교육공간이다. 책을 통한 즐거움과 아울러 책을 옆에 놓고 상상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책은 그림책, 그림 속에는 공상으로 이끌어 들이는 요술장이가 가득하다. 이렇게 한 인간은 그 유년기에 도서관에 대한 즐거운 학습을 시작한다.

2.3. 아주 어려서 머리 보다 가슴에 입력된 도서관에 관한 선유경향(先有傾向)은 그 인간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삶터의 등대」로 인식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입력이다. 한데 우리는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다. 도서관은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기초인식이 바탕이 되면, 보다 높은 차원의 정의가 탐처럼 올라쌓이게 된다.

2.4. 도서관은 한마디로 어떤 기대감이 꺾는 곳이다. 어떻게 이런 낭만적인 정의만 내릴 수 있을까. 그러나 낭만적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미래에 대한 설계가 가능한 그런 곳이어야 한다. 이 설계를 위한 기본작업, 곧 꿈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을 가슴 밑바닥에 한 장 벽돌놓기와 같이 고귀한 것으로 얻는 곳이다.

2.5. 이 만남은 책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다. 누군가와 그리고 어떤 가능성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도서관 가기가 즐겁다. 즐거움을 마련하는 만남의 장소. 만남이 이루어질 의자들과 아늑한 전기불빛과 그림이 있는 따뜻한 벽돌, 그리고 그 안에 꺾어 있는 조용함.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울리게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다.

2.6. 도서관에 있어야 할 것으로서, 책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조건들을 몇가지만 간추려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남들과 더불어 숨 죽일 수 있는 질서의식과 이를 배우는 순진성.

둘째 : 공부하는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는 공동체의식.

셋째 : 웃음 머금은 표정을 지닌 사서들과 예의를 지키는 적응력.

넷째 : 책으로 이루어진 벽, 이런 벽이 만들어 내는 기품 있는 분위기.

다섯째 : 책상과 걸상 및 자료함 따위의 기본시설물이 지니는 우아함.

여섯째 : 누구나 발끝으로 다니는 기본적 예의와 에티켓.

일곱째 : 쉼터.(녹색공간, 전시관, 감상실, 간이스넥)

여덟째 : 자원봉사제도

아홉째 : 마이크로필름 같은 기기

2.7. 이런 조건들을 여기에 나열하는 것은, 책만 있으면 된다는 고정관념을 벗어 나게 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이런 조건들을 학습하는 시기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처음으로 도서관이 어떤 곳인가를 배우는 일이 시작되는 아주 어린 나이의 견학기(見學期)이다. 대강 7세 전후이다.

2.8.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을 구경시키면서, 입술 한가운데 손가락을 갖다 대고, 도서관의 공동체의식을 가르친다.

책과 인생과 그리고 보다 나은 삶. 이런 세가지의 연관성이 막연하게나마 어린이의 머리 속에 입력된다. 이것이 도서관 내부시설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주어지는 학습의 전부일지라도 대단히 가치있고 의미있는 「사건」이 된다.

2.9. 어린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방황하게 되는 시기에 「도서관을 찾아가」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하는 것은 아주 고귀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도서관을 구경했을 때 「눈에 들어온」 전부는 결코 도서관 건물만이 아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도서관을 어떤 신비한 보물 창고처럼 생각하게 된다.

3. 자원봉사제도의 운영

- 3.1. 도서관은 학생들만 드나드는 곳이 아니다. 무엇을 배우려고 또는 찾으려고 하는 의욕을 가진 모든 이들이 드나드는 열린 장소이다. 도시나 마을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고장의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즐겁게 또 보람있게 자기 시간을 사회에 바치는 공공의 장소이다.
- 3.2.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색깔로 표시된 옷(上衣)을 입고 일하면서, 하루에 몇시간씩 자기 시간을 남을 위해 쓰되, 젊은 이들 뒷모습에서 지나간 날의 자신의 자랑스러운 옛 모습을 되살려 보는, 마음의 보상을 충분히 받는다.
- 3.3.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 분야는 사서자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분야이다. 단지 자신의 역량을 남김없이 다 발휘하기 위해, 젊음과 생기(生氣)를 되찾는 일이 가능한 곳이므로 도서관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다.
- 3.4. 도서관의 부대(딸린)시설로 가장 이용도가 높은 곳이 스낵이라는 간이 식당인데, 이 시설은 거의 예외없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스낵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매년 한 번 여는 도서관 축제(祝祭)때에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청해서 공개한다.
이 축제 때, 도서관시설확충기금, 또는 도서관기금모금행사의 밑돈으로 쓰여진 것까지 포함해서 「도서관운영실태」와 함께 보고된다.
- 3.5.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에서 마련하는 프로그램에는 마을의 C.I.(Corporation Identity)프로그램이 있으며, 글짓기·그림그리기·주부백일장·베스트셀러에 대한 느낌쓰기·이름난 시인이나 작가를 초청해다 여는 대화의 모임이 있다.
그림그리기에서 뽑힌 그림은 우편그림엽서로 제작되어 도서관부속 문방구에서 팔기도 한다. 하여간 자원봉사자들이 일하여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금은 반드시 도서관을 위한 행사에만 쓰도록 규정되어 있다.

3.6. 도서관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예산은 도서관 부속시설에서 나오는데,

첫째 : 복사시설운영

둘째 : 사물(私物)보관함(wall-rocker)운영

셋째 : 간이식당운영

넷째 : 자동판매기운영

다섯째 : 미술작품복사인쇄물 판매금 따위이다.

3.7. 도서관마다 복사시설로, 복사기가 수십대씩 복도에 설치되어 있다.

학생들이 주로 교과서의 필요부분만 복사하는데 복사기를 쓴다.(미국에는 교과서 값이 엄청나게 비싼 편이므로 교재를 부분적으로 복사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또 복사시설로는 마이크로필름을 확대해서 복사하는 기계도 있다. 모두 동전을 넣어 쓰도록 되어 있다.

3.8. 자원봉사자들은 학생들이나 또는 이용시민들이 모두 「정직한 시민」이 되도록 복사시설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 자격증을 지닌 사서들이 이런 일까지 관리하도록 시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사시설이 충분치 않았을 적엔 도서가 훼손되는 일이 있었다. 복사시설은 희귀본의 책을 보존하는데 필수적인 시설이다.

3.9. 도서관 복도에는 복사기만큼의 월라커(waall-rocker)들이 벽에 붙어 있다(우리 나라에는 기차역 구내에 설치되어 있다.) 이 유료보관함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한두시간씩 사물을 넣고 잠그는 필요시설이다. 도서관에 와서 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도 하고, 영화도 보고, 미술감상, 음악도 듣고 하기 때문이다. 이 시설이 있어야 도서열람실의 책상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점」되지 않는다.

4. 도서관의 유형(類型)과 기능

4.1. 내가 경험한 외국의 도서관은 대충 세가지로 나뉘어 그 유형(類型)으로 간추려진다. 첫째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대학도서관이고, 둘째는 큰 도시의 시립 중앙도서관이며, 셋째는 카운티(County - 區) 규모에 있는 지역도서관인데, 그 규모나 운영예산 역시 위에 열거한 순위와 거의 비슷하다.

4.2. 일반적으로 도서관시설은 일반도서열람실, 참고도서열람실(주로 고전에 속하는 문헌정보를 비장한 시설), 그리고 자료분석실이 있다. 이밖에 주기능이 아닌 부속기능으로서 새롭게 추가된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디오감상실, 미술작품전시실, 다목적공연실(순회연극 또는 합창단공연따위), 영상시설실, 토론실 따위가 그것들이다.

4.3. 그러나 최신 도서관으로 설계 건축된 도서관에는 위에 열거한 주기능 및 부속기능 시설 외에 전자기기시설이 필수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마이크로필름실, CD룸실, 영상자료실(Film-Library), 지역사회정보센터 따위가 그것들이다. 이런 추가시설은 지역주민을 우체국 보다 먼저 도서관으로 오게 만든다. 한마디로 도서관은 문화집중공간이 되고 있다.

4.4. 대학도서관, 시립도서관, 지역도서관 이렇게 3등급으로 나뉘는 도서관시설 외에 별정급 도서관이 따로 있다. 주로 대학 캠퍼스 안에 특저인의 기념도서관으로 설치된 「기념도서관」 시설이다. 기념도서관(Memorial-library)은 유언에 따라 장서를 전부 학교에 기부하여 건물 한채가 기증자의 기념도서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처럼 대학도서관의 기존도서관에 섞지 않고 따로 보존한다. 왜냐하면 유언에 기증조건을 명시하는데 따로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기존도서와 섞이면 기념장서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얼마 안가 희귀본 수집가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 대학이 부러워해야 할 한가지가 아닌가 싶다. 단, 기념도서관을 대학에 남길 때엔 이의 유지를 위한 기금도 아울러 대학에 인계된다.

4.5. 지역도서관은 큰 도시의 구(區)마다, 또는 마을(county)의 한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지역도서관들은 위치가 다르듯이 특성 또한 다르다. 이것은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특징 가운데 한가지다.

A구의 도서관은 사회복지에 대한, D구의 도서관은 고고학에 관해..., 이렇게 주기능 이외에 특수성을 지닌 부수 기능을 아울러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4.6. 이러한 지역도서관의 특징은 한 도시 안에 여러개의 도서관들이 병존해야 할 존재이유를 충분히 설명한다.

4.7. 구(區)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서관은 앉아서 이용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고 이용자를 찾아나서는 일에 예산을 적지않게 쓴다.

「Circulating Library」라는 낱말로 설명되는 지역도서관의 새로운 기능은 문헌정보를 생활정보로 확산시키는데 중간 채널의 몫을 하고 있다.

실제로는 움직이는 도서관, 곧 Mobile Library라는 이름으로 이동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도서관이 지닌 정보가 지역주민에게 얼마나 「유익한 가치」 인가를 경험시키고 있다. 유익한 기관으로 도서관은 그 유익성을 나눠주는 일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 사서로 취임한 젊은이들은 지역주민들과 친해지기 위해, 이 「즐거운 나들이」인 이동도서관 운영에 참여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4.8. 이웃 일본에는 일찍부터 구(區) 단위의 행정자치단체마다 체육회관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건강문제로 흡수해 들었다. 이후 이 스포츠 센터는 구민의 후생복지에 관한 복지개념으로 발전된다.

우리나라도 88년의 올림픽 이후, 이러한 구단위 체육관 설치를 본따서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급하기는 구단위의 도서관 시설 설치이다. 이것은 정책입안자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거나 또는 못보았거나 그대로 간과한 점이다.

4.9. 마을도서관에는 한쪽에 어린이 코너가 따로 있거나, 어린이 열람실이 다른 방에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곳에 진열된 책은 독자가 요구할 경우, 즉석에서 전화로 출판사에 연결된다. 다 읽지 못하고 집에 가게될 때 대출이 가능한데도, 출판사에 전화로 구매가 가능해서, 집에 우편판매로 배달이 된다. 이 경우 전화연결서비스 비용은 출판사가 부담한다.

요즘엔 전화보다도 팩시밀리로 연결되어, 도서관에서의 즉석 책주문이 가능하다. 도서관은 이렇게 책을 「읽히는」 중간역할자로 매개기능을 넓히고 있다. 이런 실무는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다.

4.10. 마을도서관은 정기적으로(주로 학기초에) 도서관의 안마당을 개방하여, 헌 책과 새 책을 서로 바꾸는 모임을 주선한다. 자기가 읽은 책을 남과 바꾸기도 하고, 출판사가 묵은 책을 싸게 팔기도 한다.

이런 일궂은 책을 매매하는 모든 일과 행사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도서관이라는 인식을 뿌리 깊게 심어주는데 뜻이 있다.

4.11. 마을도서관이 또 바쁜 것은 읽은 책을 가져올 경우, 그 지역의 주산물(主産物)인 농산물과 바꿔주는 행사까지 주선하기 때문이다. 대개 여름부터 가을까지 8주동안 몇째 주일의 몇째 날에 연다는 것을 사전에 공고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맡아 한다. 요즘엔 골동품인 앤티케와 책을 파는 벼룩시장 비슷한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4.12. 마을도서관은 늦가을부터 추수감사절 이후까지 「그림그리기」를 마련한다.

어린이들이 읽은 책의 느낌, 동화의 세계를 상상으로 그리는 그림그리기다. 이 그림그리기는 매년 정기행사로 열린다. 또 어린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까지 나이가 올라가고 있다. 도서관이 즐거운 곳이라는 개념은 이런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스며들게 마련이다.

4.13. 미국에서나 영국에서나 서양에서는 「독후감모집」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 독후감(讀後感)이라는 한문 표의문자로 보여주듯이 읽고 난 느낌만 쓰도록 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독후감쓰기」가 되어서, 어린이들이 이 숙제부담감 때문에 책을 완전흡수하지 못한다. 책에 담긴 내용의 즐거리를 요약하는데 더 매달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식인 이 독후감모집 행사가 많아서, 여기에서 상을 받고 뽑힌 것들이 한권씩 책으로 발간되고 있다. 독후감의 모범답안집과 같다.

이 모범답안집의 것을 읽거나 외우고 독후감모집에 응모하면, 결국 스테리오 타입으로 정형화된 결론만 유도하게 된다. 이것은 효과적인 교육이 아니다.

- 4.14. 독후감모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쓰기」가 있다. 책을 읽고 난 뒤에 오래 머리에 남는 「느낌」, 이것을 정리해서 쓰라는 것이다.

이 느낌쓰기는 즉석에서 자기 자신에 의해 낭독으로 공개된다. 그리고 공개된 내용에 대해 토론이 전개된다. 각양각생의 느낌이, 여러 토론자에 의해 씨줄과 날줄처럼 교직되어 무늬가 만들어지면, 비로소 무엇인가 자기만의 결론을 얻게 된다.

5. 도서관은 정보시장이다.

- 5.1. 큰 도시에 있는 시립중앙도서관 규모의 도서관시설이면 완벽한 정보시장(情報市場)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문헌정보에 한하지 않는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이는 모든 정보를 포괄한다. 그러므로 큰 도서관은 문헌정보만 수집·정리·보관·분석·보존하지 않고, 생활 정보도 다루는 기능변화를 하고 있다.

- 5.2. 도서관의 기능변화는 주기능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수기능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크다. 부수기능에서 생긴 기능변화에는 학생들의 하루(1日)생활의 생활교육장소가 되는 것이 있다. 학교의 선생이 학급별로 학생을 인솔하여 와서, 학교의 교실에서 하듯 도서관 토론실이나 자료실에서 이동수업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5.3.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교사가 학생을 데리고 와서 설명하듯이, 도서관의 부속시설인 영상실이나 전자오디오실 또는 정보검색실에 들어가, 도서관의 전부(운영에서부터 사서실무까지)를 가르친다. (이는 도서관의 이용이나 도서관의 이해에 대해, 도서관측에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런 도서관학습프로그램은 학교별로 다달이 프로그램이 사전에 짜여진다.

5.4. 그 다음, 정보시장으로 큰 도시의 도서관이 전개하는 프로그램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한 마디로 문화게시판의 일몫이다.

도서관에만 가면 그 도시의 문화시설에 어느 곳에서 어느때에 무슨 공연이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시민에게 노출시켜 준다.

최신 시설인 경우에는 전자게시판이고 그렇지 못한 곳엔 일반게시판이다. 요즘엔 공항의 여객기 이착륙정보판과 비슷한 정보게시판이 시민을 도서관으로 모으고 있다.

5.5. 유럽에는 특히 스칸디나비아의 북구의 세 나라에는 도시마다에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붙은 문화공간시설이 평균 일여덟곳씩 있다. 예를 들면 도자기도서관, 필름도서관, 조선(造船)도서관, 민속도서관, …… 이 곳의 「도서관」이라는 용어가 지닌 뜻은 우리나라의 그 개념과 다르다.

그러나 도서관이라는 어휘가 시민이나 학생에게 아주 친근하고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도록 많고 흔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내가 이담에 배 만드는 공학을 하게 된다면,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면 조선공학의 역사를 배울 수 있겠다…」

이것이 오슬로의 조선도서관에서 만난 학생의 대답이다.

도서관이 이렇게 행할 바로 곁에 있어야 가까워지고 친근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점에 너무 무관심했다.

5.6. 그들은 교회에서 삶에 대한 지혜를 얻고, 도서관에서 삶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말한다. 도서관은 이렇듯 정보시장이고, 커뮤니티 센터이며, 문화공간시설이다. 도서관에서 얻는 정보는, 누가(who), 어떻게(how), 무엇을(what), 언제(when)했는지를 가르쳐주는 생활정보이기에, 예배뒤에 교회 안마당에서 나누는 대화에 끼려면 먼저 도서관부터 갔다와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것인가를, 도서관이 추천하는 책(시간)에서 얻고, 그것을 대화에서 화제로 삼는다. 이런 생활양식이 요즘의 유럽사람들의 세상살이에 나타나는 본보기들이다.

5.7. 큰 도시의 중앙도서관 관장이 하루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비중있게 보는 업무 가운데 하나는 자원봉사자들과 토론을 벌이고 평가하는 일이다.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서출신 은퇴자들이다. 이들은 더 이상 봉급을 받지 않으나 옛 직장의 발전을 위해 「즐겁게」 시간을 쪼개 쓰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5.8. 큰 도시의 중앙도서관이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은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 크리스찬사이언스 모니터같은 신문들의 서평에 오른 책의 저자와의 만남을 주선해서 저자를 초빙해다 시민과의 만남의 자리를 여는 것이다.

대강 일년에 네 번쯤 어느 달 몇째 주 수요일로 정해져 있다. 이 「저자와의 만남」은 전미(全美)도서관협회상을 받은 책의 저자를 초청해서 소개하는 일로, 이미 1920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전미도서관협회는 미국의 도서관협회에 가입된 여러 규모의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이 가려 뽑아 정하는 상이다. 이 행사는 도서관 사서들이 긍지로 삼고 있다.

5.9 큰 도시의 중앙도서관은 세계도서관들과 도서관행사의 포스터를 교환·수집하여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 포스터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지역특성과 문화특성이 나타나 있어 흥미롭다. 연 1회의 전시회를 여는데 이 기간에는 대학의 미술·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도서관에 오는 주간(週間)으로 알려져 있다.

5.10. 큰 도시의 중앙도서관은(학기마다 교육위원회와 의논해서) 미국의 서울인 워싱턴의 의회도서관(세 채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 두 채에 한해서) 견학수학여행관을 조직한다.

학생들이 대절버스로 워싱턴에 수학여행을 가는 가장 큰 명분이 의회도서관을 견학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회도서관은 학생에게 일정기간 공개하거나 학생대표단체에게만 공개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궁(宮)도서관을 공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엔 청와대도서관이 있다.

5.11. 미국의 경우 다 말할 수는 없고 뉴욕주의 경우를 보자. 뉴욕대학이 있는 뉴욕시 캠퍼스와 버펄로캠퍼스, 그리고 알바니캠퍼스의 세 개 뉴욕 주립대학 도서관들은 전상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 넓이만 한 크기의 뉴욕주 안에 어디에 살든, 대학도서관의 컴퓨터와 연결하면 세 개의 대학도서관의 어떤 문헌정보이든 안방에서 뽑아 읽을 수 있다.

5.12. 이러한 전산연결시스템의 운영은 정보검색기술의 발달로 국제화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서울의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과장실에서 컴퓨터로 뉴욕주립대학 버펄로캠퍼스 도서관에 있는 책의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정보검색기술의 활용을 위해 우리나라도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공동이용을 시도해 볼 만하다.

5.13. 내가 가 있던 앤 아버(Ann Arbor)의 유니버시티 오브 미쉬간의 경우, 학생 수 5만명인 캠퍼스 안에, 단과대학마다 학부 학생을 위한 도서관들이 있고, 그리고 대학원생이 애용하는 도서관이 따로 있으며, 특별도서관인 기념도서관들이 있다.

학부도서관은 밤 10시면 문을 닫으나 대학원도서관은 밤 12시까지 연다. 그래서 밤 10면 대학원도서관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줄을 보게 된다.

건강한 시민을 키우는 일은 교수가 하는 것 보다, 문헌이 지닌 정보를 곧 선현들이 책속에 남긴 진리의 보석을 캐내는 방법론의 터득에 있다. 진리의 보석은 지혜의 활용으로 반짝인다.

이것이 미쉬간대학 도서관의 캐럴 속에 잠수함처럼 들어가 박혀 생각해 낸 것이다.

6. 맺는말

6.1. 우리나라 현재의 실정에서 도서관이 제대로 그 기능을 다 하자면, 우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까닭으로부터 역(逆)으로 거슬러 밝혀 보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

그나마 허용된 여건 속에서 만족지 못한 조건을 가지고 그래도 잘 해 보겠다고 정성을 들이건만 잘 안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까닭채기를 위한 작업은 도서관 밖에서 도서관을 애정있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맡겨져야 제대로 해답이 나온다.

실증적 조건분석을 앓더라도 피상적으로 열거할 수 있는 악조건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다. 쉬운 한가지만 들어보자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자동차 없이는 가기 어려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자동차를 갖게되려면 아직 멀었다. 전철을 타더라도 내려서 십여분 이상 걸어야 하는 위치설정에 문제가 있다. 전철을 빨리 연결시켜야 하겠다. 또 서울시내 버스들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지나가는 노선이 어떤 것인지 전연 강북지역 주민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둘째... 셋째... 조건들도 여기에 나열하자면 끝이 없겠다. 결국, 불합리한 조건들 다 이기고도 가는 사람들은 거의 시간제약이나 시간구속을 안 받는 유형의 시민들이다. 이들이 누구인가, 재수생들이다. 재수생은 도서관을 공부방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오늘날 도서관시설이 공부방시설로 전락하는 위기, 이를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은 시장처럼 위치가 생명이다.

6.2. 우리나라에 외국에 없는 공중시설인 다방이, 한 삼십여년 동안 큰 도시마다에서 만남의 장소로 활용된 「이상한 현상」이 있었다. 요즘 다방은 현저하게 줄고 있고, 사양기레 들어서고 있다.

왜 다방이 그토록 번창했을까. 6.25전쟁으로 말미암은 폐허의 도시에, 만날 수 있는 공간은 다방 뿐이었다. 집으로의 초대나 공공 시설에의 방문은 피차간에 적잖은 부담을 주었다.

그러나 주생활공간의 구조가 달라지고 도시빌딩의 사무실 내부구조가 바뀌고 난 뒤부터 다방의 대체기능이 생겨나 다방은 시들게 된다. 자연조절인 셈이다.

공부방시설인 사설(私設)소규모 「수험생도서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살필 수 있다. 대체기능이 생겨야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그 기능에 복귀할 수 있다.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의 카운티 라이브러리(County Library) 규모의 마을도서관이 구(區)마다에 늘고, 그리고 거기에 서양도서관의 캐럴(carrel)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6.3. 전문직종 또는 전문분야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자료부족을 느끼게 되는 기회가 늘어날수록 도서관이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도서관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6.4. 우리나라 도서관은 외국과 달리 족보(族譜)모으기를 위한 전시회를 마련, 문중상대로 특색있는 연례행사로 키울 필요가 있다. 이것은 외국에서도 매력있는 행사가 될 만하다.

6.5. 족보전시회를 통해 도서관이 족보열람특실을 마련하게 되면, 노년층의 관심을 유도하여 붓글씨·휘호·사군자(四君子) 따위의 쓰기, 그리기 경연대회를 연례행사로 개발할 수 있겠다. 이런 것 가운데 수상작품들은 도서관발전 홍보책자에 쓰거나 또는 연하장의 그림이나 글씨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제작된 그림엽서는 도서관에서 기념엽서로 팔 수 있다.

6.6. 가장 중요한 결론은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촉구하는 것이다.

도서검색컴퓨터링은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도서관학이 과학」인 것을 실증적으로 인식시키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며 긍지를 갖게하는데도 역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런 인식의 보급과 보편화를 위해서, 도서관이 전산화의 원리와 도서검색컴퓨터링을 공개강좌로 열 필요가 있다. 이를 공개강좌할 인적자원은 우리나라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의 인식에 도서관은 「먼지가 쌓인 책의 보관소」가 아니라, 정보전자기기가 번쩍이는 곳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넣어주는 공개과정이다.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방안

김 지 봉

(경기도립포천도서관장)

여 백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방안

포천도서관

관장 김 지 봉

1. 들어가면서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정보·교육 및 문화센터로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자신을 완성해 가는 평생 학습의 장이 되는 곳이고, 또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여가선용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가 주민들의 자주적인 모임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 최근 정보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열린 교육 그리고 지방자치정착에 따른 지역문화수요로 그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은 있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소득수준이나 다른 분야의 발전에 비하여 시설이나 서비스 제공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하겠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과정 영향으로 공공도서관 같은 문화복지 분야는 다른 시·도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다. 실지로 경기도 공공도서관수준은 16개 시·도에서 도서관 1관당 인구는 181,000명으로 10위, 1인당 책수는 0.29권으로 15위, 1인당 대출책수는 0.28권으로 14위, 1인당운영비는 2,736원으로 15위 그리고 사서 1인당 인구수는 45,515명으로 16위에 이를 정도로 전반적으로 열약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기에 경기도에서 획기적인 “도서관발전 및 운영개선계획”을 제시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그 추진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과 같은 지방고유업무의 경우에는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방정부의 지역특성에 따른 정책추진의지에 따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운영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범위는 단순한 도서관의 행사 의미보다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상위개념으로 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제시한 “도서관발전 및 운영개선계획”과 관련하여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한정했다.

2. 공공도서관 기능과 프로그램 유형

유네스코가 1972년에 채택한 ‘공공도서관선언’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교육, 문화, 정보를 위한 민주적인 기관으로서 인류의 사상이나 지식의 기록, 창조력의 성과들을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1항에서는 도서관을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학습, 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또한 제2조 4항에는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1. 공공도서관의 정보적 기능

① 도서자료의 제공

현대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이며 생산되는 정보의 양과 비례하여 정보의 이용 또한 유료화되고 있는 현시기에 여러 도서와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신속히 수집, 정리하여 지역주민들이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의 정보제공기능은 가장 기본적인이라 하겠다.

② 비도서자료 및 전자정보서비스

도서자료 이외에도 CD-ROM, Tape, 광디스크 등 다양한 매체의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또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나 PC통신 등을 통해서도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자정보까지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참고서비스 제공

다양하고 많은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와 양질의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일 것이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정보자료를 정리하여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참고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켜야 한다.

④ 지역자료 제공기능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공공정보를 보관하고 제공한다. 또는 지역의 풍습 및 역사, 각종 통계 등의 모든 자료를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보존하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2-2. 공공도서관의 교육적 기능

① 평생학습 기능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자료를 통한 자기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독서를 통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단순히 시험, 과제를 위한 독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각자의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한 학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도 지식의 대중화라는 차원에서 어린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으며 제도화된 학교교육을 완성시킨다는 차원에서 유아교육내지는 초등교육부터 사회교육까지를 서비스 영역으로 하고 있다.

② 학교도서관과 연계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각종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원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3. 문화·여가적 기능

상업문화, 저질문화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은 자료의 수집과 제공이외에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자료를 이용하여 문화활동을 주관할 수 있으며 더불어 도서관과 자료의 이용을 촉진하고 새로운 이용자층을 획득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이러한 문화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공공도서관이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여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새로운 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위한 지역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와 더불어 정보화사회에 있어 단절되기 쉬운 지역주민간 교류기능이라든가 주민간 교류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서관의 본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다.

2-4. 프로그램 유형

공공도서관이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적 기능, 교육적 기능, 문화적 및 여가, 교류기능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도서관 기능 중에서 교육적 기능만이 중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공부방 기능만이 크게 확대되어왔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운영도 서비스 중심이 아닌 시설관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도서관운영에 있어 전문정보보다는 시설확충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은 1970년부터 12개 공공도서관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제휴하여 방학동안 운영하여온 독서학교가 시작이었고 그 이후 1980년대부터 서울시공공도서관에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시작되어 공공도서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운영의 역사는 외국에 비하여 낙후된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1990년대 지방화이후 공공도서관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면 도서관 기능과 관련지어 프로그램 유형을 분류하여 보기로 한다.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유형

기 능	내 용	서비스 종류
1. 정보적 기능	자료제공서비스 참고서비스 지역자료제공	서지봉사, 미디어 정보봉사, 이동도서관 자료분석·가공, 조사서비스 공공정보, 지역정보, 향토자료
2. 교육적 기능	독서교육 학교교육지원	독서지도, 이용자 교육 학교도서관 지원, 교원 및 학부모 교육지원
3. 문화·여가적기능	문화활동 교류공간	문화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강연회 문화공간, 주민모임활동(community)

3.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

3-1. 프로그램 현황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아직도 학생들의 공부방 내지는 독서실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들이기 마련이고, 이들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시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게 된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의 경우 '97년도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860만명에 이르지만 대출책수는 220만권 정도에 불과하다. 경기도 인구로 보면 1인당 인구대출책수는 0.28권에 불과하여 일본 동경도의 5권과 비교하면 무려 18배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서울의 0.36권과 비교한다해도 경기도지역 공공도서관의 환경은 열악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열악한 환경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외면하게 되고 그에 따라 도서관의 이용률도 낮아지게 되며 결국 도서관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제공 서비스가 이렇게 열악한 실정이고 보면 교육·문화적 기능과 관련있는 프로그램은 더욱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실지로 '98년도 기준으로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도립수원도서관이 조사한 경기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의하면 경기도지역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은 26개 정도뿐이다. 경기도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육공간은 문화원, 백화점, 문예회관 등 288개소나 되며 강좌수는 4,296개나 되는 것에 비하면 공공도서관이 주관하는 문화강좌는 전체대비 3%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하다.

또한 '9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제공한 문화활동 프로그램만 90개가 되고 전체강좌가 607개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경우 아직도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1) 경기도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운영 현황

'98년도 기준

번호	프로그램 내용	강좌수	대 상			
			성 인	중고생	초등학생	유 아
1	독서교실	23		3	20	
2	동화구연	13	4		4	5
3	종이접기	12	7		4	1
4	서 예	12	12			
5	영 어	12	12			
6	꽃 꽃 이	11	11			
7	문예창작	6	5		1	
8	일 본 어	5	5			
9	N I E	4			4	
10	논술 및 독서지도	4	2	1	1	
11	한 문	4	4			
12	문화재 탐방	3	2	1		
13	사 군 자	3	3			
14	컴 퓨 터	3	1	1	1	
15	인 터 넷	2	1		1	
16	사 진	2	2			
17	수 지 침	2	2			
18	미 술	1				1
19	메이크업	1	1			
20	연극교실	1	1			
21	꽃장식과 선물포장	1	1			
22	요 가	1	1			
23	수화교실	1	1			
24	예절교실	1	1			
25	도 예	1	1			
26	바둑교실	1	1			
	계	130	81	6	36	7

© 자료 : 경기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 안내(경기도립수원도서관).1998.

(표2) 경기도 사회교육프로그램 현황

번호	시·군	평생학습기관	강좌수	번호	시·군	평생학습기관	강좌수
1	고양시	18	664	17	용인시	11	154
2	과천시	4	66	18	의왕시	1	8
3	광명시	5	65	19	의정부시	11	276
4	구리시	6	79	20	이천시	3	9
5	군포시	8	63	21	파주시	9	48
6	김포시	2	16	22	평택시	12	111
7	남양주시	3	14	23	하남시	3	27
8	동두천시	3	20	24	가평군	7	20
9	부천시	26	700	25	광주군	5	22
10	성남시	17	446	26	양주군	2	8
11	수원시	47	674	27	양평군	7	16
12	시흥시	2	5	28	여주군	12	35
13	안산시	11	252	29	연천군	5	8
14	안성시	4	20	30	포천군	6	31
15	안양시	20	310	31	화성군	12	72
16	오산시	6	57		계	288	4,296

◎자료 : 경기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 안내(경기도립수원도서관).1998.

3-2. 문제점

① 정보적 프로그램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제공서비스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 인구 1인당 대출책수가 0.28권으로 선진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대출서비스를 보완하는 이동도서관도 17대에 불과하여 공공도서관 시설부족과 함께 지역주민이 다양한 정보나 자료를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공공도서관의 정보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새로운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CD-ROM을 중심으로한 비도서자료 수요의 증가, 그리고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급에 따라 특히 디지털 형태의 자료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것 등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수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시설과 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사회가 정보화사회로 이행되면서 이제 공공도서관도 다양하고 많은 자료와 정보를 체계화하여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공도서관에서는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정착에 따른 지역정보나 향토자료의 수요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② 교육적 프로그램

도서관은 도서 및 자료를 보관·제공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독서지도와 같은 교육적 기능이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은 제한적이거나 대부분 초등학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중고생과 같은 청소년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검색의 공개로 이용자에 대한 이용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컴퓨터용 학습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최근 열린교육의 영향으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97경기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은 23개에 불과하고 도서실을 갖춘 학교는 988개교로 전체학교의 73%수준이고 그나마 운영실태도 열악하기 때문에 실지로 학교도서관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에서 학교교육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③ 문화·여가적 프로그램

최근까지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은 대부분 주민들에게 도서관 및 도서관 이용(독서)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즉 주민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문화활동의 대상이 주로 주부 및 여성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직장인들이나 청소년 및 노인층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어 도서관이 스스로 이용자층을 제한하는 인식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화프로그램은 백화점의 문화센터나 일반단체에서 하고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단지 여가선용이라는 목적은 달성되겠지만 문화수준의 향상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연대성을 갖도록 하는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공공도서관의 문화활동은 여가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문화활동의 참가로 도서관 자료의 대출이 늘어나고 도서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의 자주적인 모임이 되게 하는 교류적 기능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사회구성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킴으로써 공공도서관이 지역내 종합문화공간으로 정립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 동경도의 공공도서관진흥정책으로 시행되었던 도서관 정책의 과제와 대책(1970)에서도 “동경도민의 도서관 이용을 증진시키고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이 의논하고 도시생활 가운데서 연대를 위하여 모이고 이것이 시민문화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다. 도서관은 이와 같은 자주적인 모임, 집회활동을 돕고 이를 위한 집회실, 자료실을 제공한다.”고 제안하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에 대하여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④ 운영상의 문제점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기능별 현황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공급될 수 없는 것은 공공도서관운영상의 제반여건이 충족되어 있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 하겠다.

그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절대적 부족이라 할 수 있다. '98년도 기준으로 경기도지역 공공도서관 수는 43개관으로 인구 181,000명당 1개관 수준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도서관도 이용자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하고 시설도 문화공간보다는 학습공간의 기준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공급이 사실상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예산의 절대적 부족이다. 1998년 경기도 공공도서관 43개관의 1년 예산은 총229억원으로 인구 1인당 운영비가 2,690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평균치의 76%에 불과하다.(경기도는 16개 시·도에서 15위) 이러한 예산도 대부분 인건비나 도서관운영비로 지출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료구입비는 12%만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전문직원의 부족 -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프로그램개발과 실행을 위해서 전문직원의 확보는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은 도서관직원 632명 중 사서직은 172명에 불과하며 1관당 사서직원도 평균 4명 정도로(서울은 16명) 사실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제공 서비스도 어렵다고 하겠다.

넷째, 문화시설간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부족은 문화시설간 협력으로 어느 정도 공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지로 '98경기도 문화학교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도에서는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여성회관이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21개 기관(도서관: 8, 문화원: 10, 박물관: 2, 청소년수련관: 1)이 20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문화시설간 협력체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문화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시설이 시·군마다 1-2개 정도이고 그나마 이용자가 접근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향후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분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문화시설과 협력 그리고 통·폐합하는 동사무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개선방안

4-1. 시설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방안으로 최근까지도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가 혹은 프로그램 이용 대상층의 확대가 제기 되어왔고 이를 위한 예산지원, 주민참여, 전문직원의 확충 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지금의 공공도서관 여건에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보다 근본적인 방안들이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본래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차별없이 서비스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고 아무도 서비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전형적인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성격상 지방정부가 반드시 공급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선택적인 서비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삶의 질에 관련된 주민문화복지정책이 새롭게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공공서비스도 시민을 위하여 공급하는 고객서비스개념이 강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도서관은 서비스보다는 시설중심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조직구조도 규칙을 중심으로한 관리중심의 운영방법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공공도서관은 다른 공공조직의 경우보다 좋은 서비스와 서비스문화를 향한 변화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효과적인 서비스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직구조의 변화도 없었다.

단지 변화가 있었다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업무의 편의성이 증가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문화복지정책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우선 시설확충이 종전보다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지로 경기도도 문화복지정책의 영향으로 공공도서관 시설들이 계속 확충될 전망이다. 그러나 향후 공공도서관이 H/W 중심의 시설관리 서비스로는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화사회에 접어든 시점에서 공공도서관이 더 이상 시설중심운영방법으로는 존립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제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각종지식과 정보, 자료중심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삶의 공동체형성에 기여하는 지역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도서관발전 및 운영개선계획”에 따르면 도서관의 시설관리중심에서 서비스운영중심으로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도서관 인력구조개선, 도서관의 첨단정보화사업추진, 도서관간 협력망 운영구축, 교육적기능강화 그리고 도서관이 지역문화공간 기능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은 도서관인력구조개선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전문직원의 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의 책임을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시대의 추세라고도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서관직원 632명에서 사서직이 17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서울은 362명)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26개정도로 초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향후 사서직이 충원이 된다해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는 대부분 지역주민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와 관련없는 간접업무는 사서의 고유업무일지라도 최대한 외부용역(outsourcing)을 이용하고 동시에 장기발전과제로 추진하는 경기도중앙도서관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의 효율성도 추구해야 할 것이다.

4-2.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스템 구축

공공도서관은 향후 주민들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 공급을 위한 시설별 상호위계 및 연계체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시설규모와 주변여건에 따라 일정한 권역내에 있는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특히 공공도서관은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거리가 멀수록 그만큼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도서관 시설을 시·군에 1-2개씩 대규모 본관위주로 공급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일상생활과 결합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향후 도서관시설은 대규모 본관과 함께 소규모 분관규모의 도서관을 많이 공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공공도서관발전 및 운영개선계획에 따르면 2005년까지 2만 5천명당 1개관 확보(400개관)를 추진하면서 통·폐합하는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작은 도서관(분관)을 300개관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설정하고 있다.

이 분관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이고 도서관의 일반적인 기능을 거의 갖춘 분관으로부터 자료의 대출기능만을 갖는 분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지금보다는 편리해질 것이고 도서관 이용자층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도서관 시설별 상호위계 및 연계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 동경도의 경우 '98년도 기준으로 독립도서관 3개관, 구립도서관이 209개관, 시·정·촌립도서관이 177개관이 중앙관과 분관(지구도서관)으로 연계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외국의 대도시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시스템구축의 방법으로는 현재의 지역도서관은 지역중앙관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봉사거점으로 활용하며 작은도서관(분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자료이용중심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금의 지역도서관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료대출과 열람기능 그리고 여가선용 프로그램은 분관에서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신 지역도서관의 업무는 그만큼 경감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수요를 생산할 수 있으며 동시에 프로그램 수준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관운영은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예산도 절감하면서 서비스의 수준은 향상시킬 수 있어 공공도서관이 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 생활속으로 정착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도서관간 상호위계와 더불어 도서관간 협력에 의한 연계 그리고 유사한 문화시설(문화원, 문예회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의 집 등)과 수평적인 연계로 문화시설의 효율성도 높이고 프로그램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기도가 단지 학습공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도서관을 21세기의 정보문화시대를 대비하여 선진국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서관발전 및 운영계획보고서”는 분명 도서관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과거 일본 동경도의 경우 '60년대 중반부터 도서관을 활성화시키자는 여론에 따라 '69년도에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5개월간의 연구와 토론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였고 그 이후 도정정책의 하나로 오랜기간 시행하여 공공도서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이계획을 추진한 경기도문화정책과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최성진. 도서관학통론. 아세아문학사. 1995
2. 김원. 도시행정론. 박영사. 1994
3. 김안제(외). 지방자치의 발전전략. 박문각. 1994
4. 노화준. 공공도서관, 지역의 정보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지방자치. 1993.11.
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역정보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1995
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도시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1995
7. 문화관광부. '98전국공공도서관 현황.
8. 김동순. 공공도서관 분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 1994
9. 한국문헌정보학회. 21세기 공공도서관 발전방향 및 모델개발연구. 1996
10. 이만수. 서울·경기북부 지역의 공공도서관 발전방향 및 모델개발 연구. 1996
11. 경기도립수원도서관. 경기지역평생학습프로그램안내. 1998

경기도 공공도서관 협력체제 방안

김 태 승

(경기대학교 인문학부장)

여 백

경기도 공공도서관 협력체제 방안

경기대학교 인문학부장

문헌정보학교수 김 태 승

I. 도서관 협력체제의 필요성

역사상 그 어떤 도서관도 완전히 자급자족 체제를 갖추었다는 성공담은 아직 없다. 이 말은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사회의 자료와 정보에 대한 온갖 욕구를 그 어떤 도서관도 100%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말이다. 1950년대 미국의 예일대학 도서관이 이 지구상의 모든 자료를 단 1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수집하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이 채 5년을 넘기지 못하고 당초 계획을 수정한 사례만 보아도 단일 도서관이 이용자의 요구를 완벽하게 수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또한 Charles P. Bourne은 “The 90% Library”¹⁾를 주장하면서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가 100%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도서관 측면에서 보면 완벽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도서관 시설공간과 풍족한 예산의 뒷받침, 도서관장서의 무한한 확충과 전문인력의 무한정한 공급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 도서관 상호간의 협력체제를 논하게 되는 당위성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도서관들 사이에 서로 중복되는 노력을 제거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업무나 서비스가 누락될 수 있는 틈새를 없애고자 하는 즉, 비능률적 요소를 제거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1) F. W. Lancaster, M. J. Joncich.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Library Services, Washington, D. C. , Information Resources Press. 1977, p.364

도서관 상호간의 협동체제를 유도함으로써 도서관의 중복되는 노력이 배제되고 틈새가 메워지면 결국 한 지역이나 나라의 전체적 도서관 서비스 수준은 물론 단일 도서관의 개별적 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 문화의 발전은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기반조성과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이라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도 부합되는 일인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과 같은 정보의 증가와 자료의 고가시대 그리고 정부기관의 구조조정 시대에는 도서관 협동체제를 통한 지식자원의 공동소유와 공동활용의 개념을 도입하는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 고려사항일 수 없으며 보다 현실적인 필요사항인 것이다.

II. 도서관 협력체제

1. 배경

도서관 상호간의 협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찌기 기원전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소아시아의 퍼거멈 도서관에 소장문헌을 대출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협동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도서관들 사이에 뿌리를 내린 것은 20세기에 일어난 일이다. 금세기에 일어난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변화들이 도서관간의 협력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나라 도서관계에도 협력체제의 개념이 이해되어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초보적 협동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차지하고라도 1960년대 초 서울 신촌지역 3개 대학 도서관간의 상호

협동제도를 그 효시로 현재 활동중인 도서관 협동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

- 1) 국공립대학도서관 협의회(1963)
- 2) 전국 교육대학도서관 협의회(1965)
- 3) 전국 사립대학도서관 협의회(1972)
- 4) 한국 신학도서관 협의회(1973)
- 5) 한국 의학도서관 협의회(1968)
- 6) 한국 전문도서관 협의회(1979-1986)
- 7) 연구단지 정보관리 협의회(1972) : 前서울 연구개발
단지도서관 실무자협의회
- 8) 한국 사회과학 정보자료기관 협의회(1990)

도서관 협력체제의 범위를 경기도내로 좁혀서 보면 지금까지 경기도내 공공도서관들 간에 유형무형의 공식적 비공식적 협조는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에 들어서는 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여 97년 11월에는 경기도내 25개 공공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선경도서관에서 “경기도 공공도서관 협력증진을 위한 도서관장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도서관 협력망 구성을 5개 권역 (남부권, 서부권, 동부권, 서북권, 동북권)으로 편성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도서관 협력방안을 논의한 일이 있으며 작년 9월에는 경기도 공공도서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분담 수서 이행협의를 위한 지방대표관장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다.

이러한 결과로 도내 공공도서관 협의기구에서는 도서관 이용안내에 대한 공동홍보와 분담수서 등에서 도서관협동의 가시적 일부 결과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2) 김창근, 도서관 상호협력기구의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서울, 한국비블리아학회. 1994. pp. 43~57

2. 협력의 원칙과 유형

도서관 협동에 관한 현행법 체계상에 나타난 정신을 보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8장 도서관 협력망(제 41조~45조)에 정보자료의 유통,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도서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계 체제로써 도서관 협력 망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력에 필요한 중앙관을 국립도서관으로 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각각 지역대표관을 지정하고 일반시, 군, 구에는 지방대표관을 지정하여 일반 단위도서관을 대상으로 지도, 조정과 협력을 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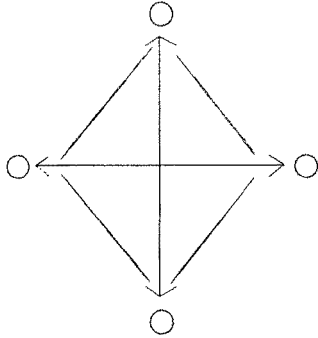
특정 도서관 협동체제가 구성되어 운용단계로 이행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이 확인되어야 한다.

- 1) 도서관 협동체제의 기본은 자발적 동기와 필요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 2) 단위 도서관의 자원을 다른 회원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개방한다는 긍정적 시각이 있어야 한다.
- 3) 모든 협동과 협조 업무는 신속한 처리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 4) 서비스의 경제성과 계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5) 협동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관리기구가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도서관 협동체제는 협동체제 내에서 자료와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기본 유형으로 구분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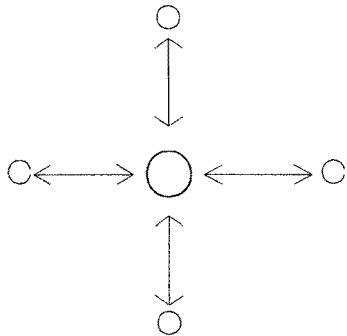
3) 최성진, 도서관학 통론, 서울, 아세아 문화사, 1995. p. 219

1) 분산형



대체로 비슷한 규모와 비중으로 참여하는 도서관들로 구성된 유형의 협동체제이다. 협동체제내의 모든 도서관들은 상호 접촉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경로가 있으나 이용순서와 같은 정해진 규범이나 절차가 없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이다. 단일 도서관의 판단에 따라 협동체제내의 어느 도서관을 선택하여 접촉하고 거기서 실패하면 다른 도서관에 접촉하는 다분히 비공식적 성격을 띤 협동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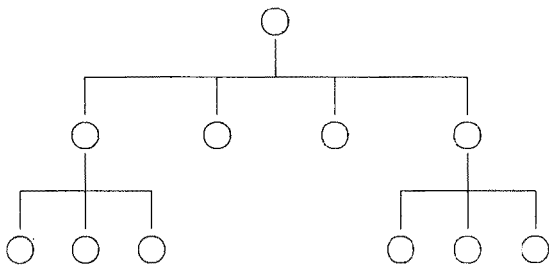
2) 집중형



이러한 유형의 협동체제는 그 자원의 대부분을 소장한 하나의 큰 도서관과 주로 그 도서관의 봉사혜택을 일방적으로 받고 있는 군소 도서관들로 구성된다. 영국의 지역협동체제에서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해당지역의 모든 도서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 중에서 자원의 규모가 가장 큰 도서관에 지역도서관 협력국이 설치되어 여러 가지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관리측면에서 대부분의 활동

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나 한곳에 집중되는 관계로 업무의 처리시간이 지체되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단점도 있다.

3) 계층형



위의 두 유형은 자료와 커뮤니케이션이 수평으로 이뤄지는 경우인데 비하여 계층형 협동체제는 그 업무가 수직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갖는다. 충족되지 못하는 요구는 계속해서 상급 도서관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계층을 올라갈 수록 도서관 수는 적어지지만 그 도서관들의 장서규모는 커진다. 이러한 유형의 협동체제는 요구사항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 시작되어 점차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므로 서비스의 책임이 여러 도서관에 분산되어 몇 개의 큰 도서관이 거의 모든 요구를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폐단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협동의 유형에는 협동대상의 지역에 따라 ①지역별 협동 ②전국규모의 협동 ③국제규모의 협동이 있을 수 있으며 아울러 도서관의 성격에 따라 ①공공도서관의 협동 ②전문 도서관간의 협동 ③대학 도서관간의 협동 ④특수 도서관간의 협동이 있으며 또한 동일 주체를 다루는 도서관간의 협동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 협동체제의 궁극적 모형은 관종과 지역을 극복한 모든 영역에서의 협동체제가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3. 협력대상 업무

C. C. Chen과 P. Hernon은 도서관의 협력대상이 되는 업무를 도서관 서비스의 기능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1)Circulation 2)Inter-Library Loan 3)Document/Information Delivery 4)Reference/Bibliographic Searching : Information Retrieval 5)Communication/Publicity

협력대상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한 내용을 보면 크게는 도서관 서비스 분야와 관리분야로 대별하여 각각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예시하였다.

1) 도서관 서비스 분야

- * 자료이용 분야의 협력 : 상호대차, 문헌복사제공, FAX 등 통신수단에 의한 데이터의 상호이용, 도서관이용 공동안내 등
- * 자료수집, 관리 면에서의 협력 : 자료의 공동선택, 공동구입, 장서구성 분담 수집, 자료의 교환, 공동보관 등
- * 자료처리의 협력 : 온라인 종합목록, DB공동구축, 분담목록
- * 참고업무 및 서지 작성 : 서지, 색인, 초록의 공동작성, 참고업무의 공동대처 등

2) 도서관 관리분야

- * 도서관 설치, 육성
- * 도서관 정책, 관련법규, 기준 설정 등
- * 도서관 예산의 효율적 관리
- * 도서관 건축 및 설비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 * 도서관 평가
- * 도서관 윤리확립의 협력
- * 정보기술, 봉사, 운영의 조사연구

이외에도 도서관의 특성과 지역여건 등에 따라 가감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나 도서관 서비스 분야를 축약하면 결과적으로 ①온라인 종합목록 ②상호대차 ③공동 수서 ④공동보관 ⑤분담목록 등 몇 개 영역으로 집약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및 제언

오늘날 우리 나라의 공공도서관을 보면 오래 동안의 도서관 “불모의 시대”에서 그나마 어렵게 싹틔운 도서관이 또다시 “위기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겠다.

잘 아시겠지만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문제, 민간위탁관리 문제, 구조조정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하여 국내의 도서관계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도 우리 경기도가 시의 적절한 도서관 발전 문제로 오늘과 같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욕에 찬 도서관 발전과 운영계획을 제시 한데 대하여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관련분야의 학자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며 도 당국에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

결론에 대신하여 우리도의 도서관 발전을 위해 이미 작년 8월 28일에 경기도소재대학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에서 도지사님께 건의 드린 경기도 공공도서관발전방안에 덧붙여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광역단위 중앙도서관의 설립입니다. 앞서서도 도서관 협력의 원칙에서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관리기구가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조사연구, 지방행정자료제공, 시, 도 의회자료 수집 및 제공, 보존, 각종 문화행사의 기획과 활성화, 지방대표 도서관과 단위 도서관을 체계화하고 특성화하는 조정기능 등 도 단위 중앙도서관의 기본 임무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도서관 전문가인 Dick Scheepstra가 제시한 공공도서관을 A부터 F까지 등급화 하여 작게는 소규모 지방도시의 기본적인 도서관 업무수행에서부터 광역단위 최고 중앙도서관의 학술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포괄적 도서관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역단위 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상호협력 사례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LTLS (Lincoln Trail Libraries System)를 들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118개 회원도서관으로 구성된 시스템은 “보다 폭넓은 정보의 접근과 정보자료 제공을 위하여 정보기관들의 상호 협동과 협조를 증진

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상호대차, 인터넷 활용, 도서관 컨설팅, 도서관 교육훈련, DB구축, 자료복사, 자료배달, 분할목록, 위성방송, LINC 라는 도서관망 운영 등등 일리노이주내의 모든 도서관을 단일 네트워크 체계상에서 봉사하는 우리에게 유용한 참고가 되는 도서관 협력 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광역중앙도서관의 기능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단위 공공도서관 기능과의 차별성입니다. 소규모 단위 도서관이 자료 열람과 대출 등 일반 서비스 기능을 중시한다면 광역도서관은 이러한 일반서비스 기능을 최소화하고 각 계층의 이용자를 위한 종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화하고 아울러 산하 회원도서관들의 중복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업무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DB구축이나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의 보급, 정보기술의 지원 등을 통하여 일선 단위도서관들이 이용자들의 최전방에서 보다 알찬 서비스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중앙도서관의 설립에 필요한 몇 가지 고려사항은 설치지역 선정에 있어서 일반 지방자치 단체들의 건전한 유치경쟁을 통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의 효율적 부지 선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인력 이외는 가능한 분야에서의 자원봉사자 활용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족한 인력의 보충방안은 물론 최소한의 시민들이라도 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시키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위 공공도서관의 시설 확충 방안으로 대 단지 아파트 건립 시 건설업체들로 하여금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기부 채납 형식의 도서관 건물 공급방안도 건설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의 공부방 기능을 탈피하여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부나 성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실한 문화사랑방으로서의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의 가벼움과 천박성, 선정주의 세태를 극복할 수 있는 본산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존재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994년에 개정된 유네스코 공공도서관선언(Unesco's Public Library Manifesto)의 일단을 인용하면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전략) 공공도서관은 지역 및 정부당국의 책임이다. 관련특정법의 지원하에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원을 조달 받아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문화, 정보, 문맹퇴치 및 교육을 위한 장기전략의 핵심부분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지봉. 공공도서관의 변화 및 발전방향. '97 도서관 발전 심포지엄 발표자료. 대구광역시. 1997. 10. 25.
2. 김창근. 도서관 상호협력기구의 도서관 상호협력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서울, 한국비블리아 학회, 1994.
3. 도서관 협력망 운영계획(안). 국립중앙도서관. 1996. 9.
4. 외국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 논의 실태 III. IFLA 회의자료. 국립중앙도서관. 1998.
5. 최성진. 도서관학 통론. 서울, 아세아 문화사. 1995.
6. 하야시마사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일본의 공공도서관. webmaster
④ chosun. com. kr
7. '97 경기도 공공도서관장 회의자료. 공공도서관협의회 경기도지부. 1997. 11. 28.

8. Connections, LTLS. vol. 20. no.8. 1997.
9. Fact Sheet, Illinois Library Systems, LTLS brochure. 1998.
10. F. W. Lancaster, M. J. Joncich.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Library Services. washington D. C. , IRP. 1997.
11. J. Becker. ed. Interlibrary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Network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Chicago A. L. A. 1971.

여 백

부 록

도서관 발전 및 운영개선 계획

경 기 도

여 백

도서관 발전 및 운영개선 계획

현재 단순 열람기능과 수험생의 공부방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도서관을 다가오는 21C를 대비 「지역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설의 점진적 확충, 도민참여의 확대 등 도서관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서관 발전 및 운영개선 계획 보고서입니다.

1. 기본방침

○ 도서관 시설의 확충

- 인구 2만 5천명당 1개 도서관 확보 (400관)
- 구미 도시수준인 반경 2km에 1관
- 대규모의 도서관 보다는 소규모의 도서관을 여러곳에 신설
- 장서확충 : 1인당 1권확보 (10,000천권), 향후 2권까지 확대
※ 특수시책으로 도서관 건립 기증운동 전개

○ 도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지향

-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 이동도서관 확대
- 범도민 도서기증 운동 전개
-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강구
※ 공공근로사업과 연계 추진
- 유휴시설 (읍·면·동사무소, 폐교등)의 작은도서관화
※ 읍·면·동의 마을회관 중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시범 운영

○ 도서관 운영의 개선

- 도서관을 시설관리 중심에서 서비스 운영 중심으로 변경
- 도서관 운영 전문(사서)직원 충원
- 도서관간 협력망 운영 구축
-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기관 역할 강화
- 다양한 이벤트행사로 지역주민의 정보문화센터 기능 수행

○ 경기도 중앙도서관 제도 도입

※ 경기도 중앙도서관 운영(안)참조 (붙임1 참조)

II. 우리도의 도서관 현황 및 운영실태

〈현 황〉

구분	개소수	운 영 인 원				도 서 자료수	'98 운 영 예 산 (천원)				비고
		계	행정	사서	기타		계	인건비	도 서 구입비	기 타 운영비	
계	44	632	85	172	375	2,357,072	22,898,731	11,952,872	2,795,777	8,690,082	
교육청	8	160	13	75	72	752,017	5,934,831	3,934,669	587,630	1,952,532	
시·군	36	472	72	97	303	1,605,055	16,963,900	8,018,203	2,208,147	6,737,550	

○ 우리도의 도서관 현황

○ 도서관수의 절대부족

- 현재 44개소를 운영중으로 개 소수는 16개 시·도중 2위(경북 45개소)이지만 공공도서관당 인구수는 19.3만명으로 16개 시·도중 11위로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며 선진국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음.

(서울 35.1만명, 강원 4.8만명, 한국 12.6만명, 미국 1.6만명, 프랑스 4만명, 일본 6만명)

o 도서장서 절대부족

- 현재 보유중인 2,240천권의 장서수는 16개 시·도중 2위 (서울 3,570천권)이지만 1인당 장서수는 0.29권으로 16개 시·도중 15위로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선진국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음.

(울산 0.24권, 제주 0.75권, 전국 0.38권, 미국 2.7권, 프랑스 1.4권, 일본 1.5권)

○ 도서관 운영실태

- o 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교육기관, 문화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대다수의 도서관은 학생들이 자신의 책을 가져와 공부하는 독서실 (공부방)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초등학생들이 학교 숙제자료를 위해 먼저 찾는 곳이 도서관이 아니고 관공서가 되고 있는 실정임.

- o 공공도서관 정책 부재속에 시설확충만 급급 전문성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KNOW-HOW 절대 부족

o 도서관 관리체제의 이원화

- 도서관 관리체제가 자치단체 (시·군)와 교육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추진이 어렵고 도서관간의 협력체계가 유기적이지 못함.
- 시·군 도서관이 교육청 소관 도서관에 비해 예산 인원등이 상대적으로 열악

【교육청과 시·군 도서관 현황 비교】

(단위 : 명, 천원)

구 분	인 원 현 황				도서 자료	'98 운 영 예 산			
	계	행정	사서	기타		계	인건비	도 서 기 타 구입비 운영비	도 서 기 타 구입비 운영비
교육청	20	1.6	9.4	9	94,002	741,854	491,834	73,454	244,066
시·군	13.1	2	2.7	8.4	44,585	471,219	222,728	61,337	187,154

※교육청과 시·군 도서관의 1개관 평균 산출치임

o 도의 도서관 정책수립 및 추진미흡

- 선진국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중앙도서관을 운영 도서관 정책 수립 제시, 조사, 연구, 도서관 지원, 국제교류 사업 추진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는 중앙도서관 제도가 없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 발전정책 시행이 어렵고 예산 지원과 관련한 소극적인 지원 업무 담당

o 전문 사서의 현저한 부족

-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계획의 입안 및 추진이 가능한 전문사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전반적으로 시설관리 차원에서 운영
-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인원(사서, 전산요원등)보다 도서관 관리를 맡은 간접 인원이 더 많은 비 효율적인 인력 구성
- 각 자료실 상근 직원이 대부분 일용인부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지식이 없고 책임감도 결여되어 있음.

【도서관 인력구성 현황】

구 분	시·군 소관 (36개관)		교육청 소관 (8개관)		비 고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일 반 직	375명	79.5%	85명	53.1%	전산직 없음.
사 서 직	97명	20.5%	75명	46.9%	

○ 도서관 발전을 위한 직원의 전문교육 미흡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만 전문사서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어 교육기회 부족
- 도 공무원교육원에는 전문사서를 위한 교육과정이 없음.
- 사서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 부족

○ 도서관 예산시설 투자비 부족

- 대다수의 도서관 예산은 인건비, 자료구입비,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정보화시대를 대비하는 정보자료실, 전산장비 구축 등의 사업비 투자가 없음.

Ⅲ. 도서관 발전 및 운영개선 계획

1. 독서 문화공간 확충

○ 공공도서관의 점진적 확충

- 2000년대 인구 1000만의 정보화 사회에 대비 2005년까지 2만 5천명당 1개관 확보 (400관) - 읍·면·동사무소 활용 작은도서관 포함

○ 도서관 확충

(단위 : 관)

인구수	목표	도 서 관				작은도서관 (분관)	비 고
		계	운영중	건립 추진중	신 설		
1000만	400	100	44	11	45	300	2만 5천명당 1관 확보

○ 소요예산

- 건립 추진중 : 11개소 590억
- 신 설 : 45개소 2,700억

○ 도서관 건립 기증운동 전개

- 도서관수를 공공투자만으로 선진국수준으로 확보하기에는 재원투자등 목표달성 난망
- 외국의 사례와 같이 도내 재력가(기업가등)의 재산 사회환원 차원에서 도서관을 건립하여 기증하는 운동 추진
- 자치단체(도, 시·군)에서 부지 알선(제공) 및 세금감면등을 제공하고 기증자의 이름을 도서관명으로 사용
- 유선방송, 시정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도서관 건립 기증운동 취지를 홍보

○ 정부의 행정구조 개편 계획과 연계 읍·면·동사무소 폐지시 도서관 활용 (485개소)

※ 읍·면·동사무소 회의실, 민원실등 여유공간 문고화

- 별도의 예산부담 없이 읍·면·동 단위까지 공공도서관 확산
※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 도서관 이용자의 대다수가 반경 2~3km에 거주한다는 통계사례가 있음.
-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분산 현재의 공공도서관을 자료실 위주의 정보센터, 지역문화진흥센터, 작은도서관은 열람실과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 행정서비스 극대화
- 부녀회원등 자원봉사자 활용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내 관리사무소 및 지하 유희공간 문고화

- 생활주변내에 자녀를 위한 “문고”마련 부녀회의 자원봉사자 중심 운영
- 건축허가시 신설되는 아파트 단지내 문고설치(법령검토)
- 문고모형 개발

○ 은행지점 등에 도서대여 공간 확보 방안 강구

○ 이동도서관 확대 운영

2. 도서자료 확충 방안

- **범도민 도서기증 운동 전개(보존, 열람, 이용가치 있는 도서)**
 - 기증의뢰서 발송(각 대학 및 학술단체, 정부 산하연구 기관등)
 - 개인문고 코너 설치 운영 (수원 선경도서관)
 - 석·박사학위 논문수집, 족보수집 (광명·군포시립도서관 등)
 - 독서회원 가입시 도서기증 권장 2권이상 (수원 선경도서관)
 - 시장 서한문 발송
 - 도서관 이용 정보안내지, 유선방송, 시정소직지 등을 통한 도서관 이용안내 및 도서기증 운동 전개
 - 공무원 1인 1권이상 도서 기증운동 전개

- **도서관별로 특성에 맞는 장서보유 특화 (특화도서관 육성)**
 - 도서관별로 자료의 특성화 및 중복구입을 지양 장서확충의 효과 배가
 - 지역의 특성과 연계 문화예술, 산업환경, 자원등 세부장르 및 영역별로 장서보유 특화
 - 지역연고 문화예술인 관련분야 (신사임당 문학, 추사서예등)
 - 지역 산업관련 분야 (영상산업, 애니메이션, 석유화학, 섬유산업등)
 - 향토 축제관련 분야등 (판소리, 농요, 민속놀이등)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 '98년도
 - 동 지역 (국비17,000천원, 도비 3,508천원) 각 29개관 지원
 - 읍면지역 (국비 8,000천원, 도비 6,606천원) 각 14개관 지원
 - 2005년까지 1인당 도서관 장서수 1권, 향후 2권까지 확충
 - 시·군 도서자료 구입 50% 지원
 - 소요예산 약 30,572백만원 (약 7,643천권 확충)
 - ※ '97년말 경기 0.29권, 전국 최고 제주 0.75권

3. 도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지향

○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서관 이용자들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의 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 도서관운영에 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도서관 운영에 스스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체제 구축
- 문고운영자를 도서관 운영위원 위촉 검토

○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강구

- 서가 및 도서정리, 신문편철 청소 등 단순업무는 도내 교육청 중·고등학교와 사전협의 중·고등학생 사회봉사 실적과 연계 추진
 - ※ 공공근로사업과 연계 추진 일자리 제공
- 부녀자원봉사원, 퇴직자, 새마을부녀회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강구
- 대학생 등 전문가들을 전공분야에 따라 컴퓨터 조작, 각종 강좌 개설시 강사로 활용 (교통비, 식비정도의 실비보상 검토)
- 자원봉사자 명부를 작성, 활동이 많은 사람은 표창등

○ 사립문고 자료구입 지원

- '98년도 14개소 지원 1개소당 4,000천원(국비2,000, 시·군비 2,000)
- 생활공간 가까워서 누구나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서시설 권장
- 공공도서관과 문고 연계 체제 확립
- 사립문고 활성화를 위한 도비 및 시·군비 지원확대 검토

○ 유희시설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은행, 농협, 폐교 등)의 문고화

- ※ 읍·면·동의 마을회관중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시범 운영

4. 도서관 운영의 개선

○ 도서관 인력구조 개선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도서관 관장 사서직 보임.
 - 도서관 운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봉사기관으로 전문사서직을 관장보임.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공공도서관에 전문(사서) 직원 충원
 - 지방행정 계층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인력 전직훈련(교육)을 통하여 도서관 관련 전문직으로 양성
 - 도서관을 시설관리 중심에서 서비스 운영중심으로 변경

○ 도서관의 첨단 정보화 사업 추진

- 첨단정보 자료실 설치 운영
- 도서관 이용 주민에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
- 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주민 전산교육 시설장비 구축
- 자료의 검색 발주 수입, 대출, 반납 예약처리등 도서관 운영에 컴퓨터 시스템 도입
- CD-ROM 등 영상 정보자료 확보 및 제공

○ 도서관간 협력망 운영 구축

- 소장자료 D/B 구축
- 목록정보 ON-LINE 제공
- 관외대출 공유제 실시

○ 지역주민의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기관 역할 강화

- 독서회 운영 활성화
- 독서교실 운영
-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확대 (사회교육 기능 강화)

○ 지역 문화진 흥센터로서 다양한 문화행사 운영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운영
 - 초청작가 강연회
 - 동화구연 교실
 - 비디오, 음악감상실 운영
 - 유치원생 도서관 견학
 - 영화 감상실 소극장 운영 (가족극장)
 -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
 - 전시회등

5. 경기도 중앙도서관 제도 도입

- 국립중앙 도서관이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의 도서관 지원은 도서자료 구입비 정도의 소극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음.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21C 정보 문화 시대를 대비 공공도서관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 도에서 중앙도서관을 운영 적극적인 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통합관리를 통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서관 운영지원이 필요함.

○ 우리도의 계획

- 선진국의 자치단체 중앙도서관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리도 실정에 맞는 중앙 도서관 제도의 도입을 장기발전 과제로 추진

메 모 장

메 모 장